

R 918-3 | 2020. 12.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3차년도): 필리핀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with the Philippines

허 장 이현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 918-3 | 2020. 12. |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3차년도): 필리핀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with the Philippines

허 장 이현미



연구 담당

허 장 | 선임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장, 제3~5장 집필

이현미 | 연구원 | 제2~3장 집필

연구보고 R918-3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3차년도): 필리핀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0. 12.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주)프리비

I S B N | 979-11-6149-440-1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동남아시아 국가인 필리핀은 모든 영역에서 우리나라와 관계가 매우 밀접한 나라이다. 신남방정책 대상 국가이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개발협력을 통한 유상, 무상원조가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다. 수많은 필리핀 국민들이 한국에 방문, 생활하고 있기도 하다.

필리핀은 쌀과 옥수수뿐만 아니라 각종 열대, 아열대 과일과 임산자원이 풍부하여 농업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풍과 홍수, 지진 등 잦은 자연재해에 더하여 정치적 분쟁으로 경제적, 사회적 피해에도 대응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전통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와의 협력관계 가운데 농업과 농촌개발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 보고서를 통해 중점 협력추진 분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필리핀이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안정을 이루어나가는 데 이 보고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보고서 작성에 노고가 많았던 연구자들과 함께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020.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홍 상

요 약

연구 배경과 목적

- 우리나라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개도국이자 동남아 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소속 국가인 필리핀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2018년에는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9.7%가 이 부문에서 생산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53%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고, 농업은 취업자의 25.1%를 고용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존재한다.
- 우리나라는 필리핀에 대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원조를 시행해 왔고 여전히 전체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서 수위 규모로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특히 신남방정책을 통해 필리핀을 포함한 ASEAN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필리핀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으로서의 농업, 인구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는 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중점 협력분야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 이 연구는 필리핀의 경제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과 농촌의 현황, 이 부문과 관련한 필리핀의 개발 전략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필리핀에 대한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

- 다양한 국내외 문헌과 통계자료, 그리고 개발협력 분야에서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1차, 2차 자료로 사용되었다. 2020년 COVID-19로 인하여 현

지조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필리핀 쌀연구산업과학재단(Philippine Science Foundation for Rice Research Industry: PhilSci)의 전문가에게 연구의 일부를 위탁하였다.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총 28명이 응답하였는데, 농업 가치사슬 협력의 단계별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 중요도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 필리핀 농업 부문은 2018년 기준 총 GDP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재배 작물로는 사탕수수, 쌀, 코코넛, 바나나, 옥수수, 파인애플 등이다. 쌀 생산은 2018년 1,906만 6,000톤, 생산 면적은 480만 ha이며, 세계 8위 규모의 쌀 생산국인 동시에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이다. 농경지 면적은 2016년 기준 559만 ha이고, 농촌 인구는 5,662만 명, 농업 취업 인구는 2018년 1,000만 명으로 총 고용의 25.1%이다.
- 필리핀의 국가전략은 『우리의 포부 2040』에 기초한다. 필리핀개발계획(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7~2022)은 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이다. 분야별 경제발전을 위해 다섯 가지 세부 전략이 제시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농림어업 분야에서의 경제적 기회의 확대”이다. 그 밖에 ‘필리핀 농업 2020’, ‘필리핀 쌀산업 로드맵 2030’ 등 전략문서가 있다.
-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ODA 중점 협력국가로,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서 30.9백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필리핀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가협력전략 가운데 지역개발은 (i)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

기술 전수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ii) 농업 가치사슬 강화 및 농업유통체계 역량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가 (iii) 농업생산 증대 및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등 세 가지를 중점분야로 두고 있다.

- 필리핀의 ODA 총액은 2018년 기준 10억 2,600만 달러인데, 농림수산 및 농촌 개발 분야가 전체 ODA 지원 금액의 6% 비중을 나타냈다. 이 보고서에서는 USAID(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ADB(Asian Development Bank), IFAD(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OECD(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등 공여국과 국제 기구의 전략, 정책적 제언 등을 살펴보았다.
-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농업가치사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질문한 설문조사 결과를 AHP 분석기법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농민역량, 금융 접근성, 농식품 비즈니스, 저장 및 가공, 유통 분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필리핀의 국가개발전략, 농업 분야 개발전략에서 제시한 중점 추진 분야들을 우리나라의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ODA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개발협력 가능 분야를 도출하였다. 최종적으로 중점 협력 분야는 ① 농업기술 보급과 인력 양성 ② 농업 생산기반 구축과 영농기계화 ③ 소농의 가치사슬 참여와 농 외소득원 제공 등으로 설정하였다.

ABSTRACT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with the Philippines

Background and Purpose

- The Philippines is geographically near to Korea among ASEAN members. Although the agricultural sector takes 9.7% of the gross domestic product as of 2018, rural areas are home to 53% of the population, and take 25.1% of the sector's entire employment.
- Korea has offered the nation substantial ODA supports. The “New Southern Policy,” declared in 2017, has accelerated the bilateral relations. Against this backdrop,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cooperation framework and select vital areas for successful assistance to the Philippines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 This research intends to analyze the Philippines'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nd review its development strategies to make policy suggestions to the Korean government for its collaboration with the Philippines.

Research Methodology

- For the research, we explored international and local literature, statistics, and databases. Amid the COVID-19 situation, undertaking field surveys was impossible. Instead, we gained advice and

information from the experts of the Philippine Science Foundation for Rice Research and Industry. We interviewed 28 international and local professionals to identify each phase's significance in the Philippines' agricultural value chains. We also use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o analyze the data we collected.

Key Findings

- The Philippines produces rice, sugarcane, coconut, banana, maize, and pineapple. It had 19 million tons of rice on 4.8 million hectares in 2018. Although it is the 8th largest rice producer, it is the biggest rice importer simultaneously. Its entire farmland was 5.59 million hectares in 2016. The rural population was 56.62 million. And 10 million people worked for the agricultural sector in 2018.
- “AmBysion Natin 2040” is the nation’s supreme national strategy. Based on the vision, the nation established the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7~2022 (PDP).” The PDP has five action plans, including expanding economic opportunities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ther crucial programs include the “Philippine Agriculture 2020: A Strategy for Poverty Reduction, Food Security, Competitiveness, Sustainability, and Justice and Peace,” and the “Philippine Rice Industry Roadmap 2030.”
- Korea selected the country as one of the countries with priority, and granted USD 30.9 million for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between 2013 and 2017. Korea'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focuses on the following: (i) agricultural productivity enhancement through infrastructure and technology transfer, (ii) farm household income increase through value chain improvement and capacity building for distribution, and (iii) inclusive and sustainable rural development through production growth and value chain improvement.

- The ODA support for the Philippines was USD 1.026 billion in 2018.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took 6% of the total.
- We analyzed survey responses using the AHP. The results show that farmers' capacity, financial accessibility, agro-food business, storage and processing, and distribution are of importance in that order.
- We explored the selected areas for development in the Philippines' strategic development programs to conduct a document-based comparison with Korea's ODA programs. Based on our research, we suggest three areas to focus on in terms of policy collaboration: i) agricultural technology dissemin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ii) agricultural infrastructure and mechanization, and iii) smallholders' participation in value chains and non-farming income creation.

Researchers: Heo Jang, Lee Hyunmi

Research period: 2020. 1. ~ 2020. 12.

E-mail address: heojang@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목적	4
3. 연구범위와 방법, 주요 구성	4
4.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국가 및 농업 현황	11
1. 국가 현황	11
2. 농업 현황	27
3. 국가 및 농업 정책 현황	43
제3장 농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수요	51
1. 우리나라의 對 필리핀 개발협력 현황	51
2. 국제사회의 對 필리핀 개발협력 현황	60
3. 필리핀의 개발협력 수요	67
제4장 중점 협력 분야	75
1. 중점 협력 분야 선정 절차	75
2. 중점 협력 분야 선정	76
3. 중점 협력 분야 가치사슬	79
제5장 개발협력 추진 전략	85
1. 추진 방향	85
2. 세부추진 과제	86
3. 우리나라 해외진출 민간기업과의 연계 방안	93

제6장 요약 및 결론	97
참고문헌	101

표 차례

제2장

〈표 2-1〉 국가개황	14
〈표 2-2〉 주요 경제지표	18
〈표 2-3〉 주요 해외송금액	20
〈표 2-4〉 필리핀의 대외거래 및 외채현황	21
〈표 2-5〉 10대 교역 대상국(2018년)	22
〈표 2-6〉 필리핀 10대 수출입 품목(2019년)	22
〈표 2-7〉 한국-필리핀 수출입 동향	24
〈표 2-8〉 필리핀의 인구·사회·문화 현황	25
〈표 2-9〉 필리핀의 지역별 인구	27
〈표 2-10〉 농축산물 생산지수	28
〈표 2-11〉 농업생산 현황	28
〈표 2-12〉 주요 작물별 생산 현황	29
〈표 2-13〉 지역별 주요작물 생산비율(2018년)	31
〈표 2-14〉 주요 종족별 사육 현황	32
〈표 2-15〉 농업면적 현황	33
〈표 2-16〉 도시-농촌 인구	34
〈표 2-17〉 농업인구 현황	35
〈표 2-18〉 농산물 교역 현황	35
〈표 2-19〉 주요 품목별 농산물 수출액	36
〈표 2-20〉 주요 교역대상국별 수출액(2018년)	37
〈표 2-21〉 주요 품목별 농산물 수입액	38
〈표 2-22〉 주요 교역대상국별 수입액(2018년)	39
〈표 2-23〉 비료 공급량	40
〈표 2-24〉 농기계 보유 현황	40
〈표 2-25〉 필리핀 지역별 빈곤율(%)	42
〈표 2-26〉 농림업 분야 경제적 기회의 확대를 위한 목표치	44
〈표 2-27〉 '필리핀 농업 2020' 추진을 위한 실행 전략	46

제3장

〈표 3-1〉 우리나라의 對 필리핀 ODA 지원(약정액 기준)	51
〈표 3-2〉 필리핀에 대한 우리나라의 농업 및 농촌개발 ODA 현황	52
〈표 3-3〉 필리핀에 대한 우리나라의 농업 및 농촌개발 ODA 지원 사업내역 (2014~2018년)	54
〈표 3-4〉 우리나라의 필리핀에 국가협력전략 중 ‘지역개발’ 분야의 세부 내용	59
〈표 3-5〉 농림수산 분야별 원조 지원 현황(2013~2018년)	60
〈표 3-6〉 USAID의 필리핀 국가개발협력전략	62
〈표 3-7〉 ADB 국가협력전략의 성과 프레임워크	63
〈표 3-8〉 OECD의 필리핀 농업정책에 대한 제언	66

제4장

〈표 4-1〉 필리핀 개발협력 수요와 한국형 농림업분야 ODA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	77
〈표 4-2〉 SDG와의 적합성 검토 결과	78
〈표 4-3〉 중점 협력 분야 선정	78
〈표 4-5〉 필리핀 농업가치사슬 중요도(1단계) 분석 결과 - 국내	79
〈표 4-6〉 필리핀 농업가치사슬 중요도(1단계) 분석 결과 - 국외	80
〈표 4-7〉 필리핀 농업가치사슬 중요도(1단계) 분석 결과 - 종합	80
〈표 4-8〉 필리핀 농업가치사슬 하위지표 분석(2단계) - 결과	81

제5장

〈표 5-1〉 필리핀 중점 협력 분야와 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계 방안	94
---	----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 흐름도	5
-----------------------	---

제2장

〈그림 2-1〉 월별 평균 기온 및 강수량(1901~2016년)	12
〈그림 2-2〉 필리핀 지도	13
〈그림 2-3〉 농림수산 분야 성과목표	45
〈그림 2-4〉 쌀 산업 로드맵 2030의 비전과 미션	47

제4장

〈그림 4-1〉 중점 협력 분야 선정 절차	76
-------------------------------	----

제5장

〈그림 5-1〉 우리나라의 필리핀 농림업 개발협력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분야	93
---	----

약어표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FACI	Asian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아시아기술협력협의체
AF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농림어업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적 분석과정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
BBB	Build, Build, Build	건설·건설·건설
BPO	Business Processing Outsourcing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CDCS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	국가개발협력전략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중앙정보국
COSOP	Country Strategic Opportunities Programme	국가전략기획프로그램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코로나바이러스 19
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국가협력전략
DA	Department of Agriculture	농업부
DBM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예산관리부
DOF	Department of Finance	재무부
EPI	Early Panicle Initiation	조기 유수분화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United Nations	세계식량농업기구
FFTC	The Food and Fertilizer Technology Center for the Asian and Pacific Region	아시아태평양양식량비료기술센터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F2C2	Farm and Fisheries Clustering and Consolidation	농어가 집중화 및 조직화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제도
GDP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HDI	Human Development Index	인간개발지수
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국제농업개발기금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국제미작연구소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KOPIA	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Technology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한국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LGU	Local Government Units	지방정부
MIC	Multi-Industry Cluster	농공복합산업단지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M&E	Monitoring & Evaluation	점검과 평가
NAST	National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국립과학기술원
NEDA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국가경제개발청
NFA	National Food Authority	국가식량처
NPK	Nitrogen, Phosphorus, Potassium	질소인산칼리비료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정부기구
NRP	National Rice Program	국가쌀프로그램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D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OLS	Ordinary Least Squares	최소자승법
PDP	Philippine Development Plan	필리핀개발계획
PHP	Philippine Peso	필리핀 페소
PhilMech	Philippine Center for Development Mechanization	필리핀 농업기계화연구소
PhilRice	Philippine Rice Research Institute	필리핀 쌀연구소
PPP	Purchasing Power Parity	구매력 등가성
PSA	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필리핀 통계청
RCEF	Rice Competitiveness Enhancement Fund	쌀경쟁력강화기금
RCM	Rice Crop Manager	미작관리자
RIPE	Rice Productivity Enhancement	쌀생산성향상프로그램
R&D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개발목표
TFP	Total Factor Productivity	총요소생산성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유엔개발계획
USAID	United State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	미국 국제개발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제1장

서론

서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개도국이자 동남아 국가연합(ASEAN) 소속 국가인 필리핀은 인구 규모가 우리나라의 두 배인 1억 665만 명에 달하고 가톨릭과 이슬람교인이 다수를 차지한다. 스페인과 미국의 오랜 식민지 기간을 거치면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간 해외 취업자를 통해 GDP의 10%에 가까운 송금액을 수입으로 하고 있다.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2018년에는 GDP의 9.7%가 이 부문에서 생산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53%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고, 농업은 취업자의 25.1%를 고용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으로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필리핀과 다양한 외교적, 경제적 관계를 맺어 왔다. 개발협력에서도 우리나라는 필리핀에 대하여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원조를 시행해 왔고 여전히 전체 ODA에서 수위 규모로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신남방정책을 통해 필리핀을 포함한 ASEAN 국가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제고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필리핀에서 가장 중요

한 직업으로서의 농업, 인구의 절대다수가 거주하는 농촌의 발전을 위해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고 중점 협력분야를 선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간 업체도 다양한 측면에서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필리핀의 경제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과 농촌의 현황, 이 부문과 관련한 필리핀의 개발 전략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필리핀에 대한 농업분야 개발협력 전략을 수립하고자 한다.

3. 연구범위와 방법, 주요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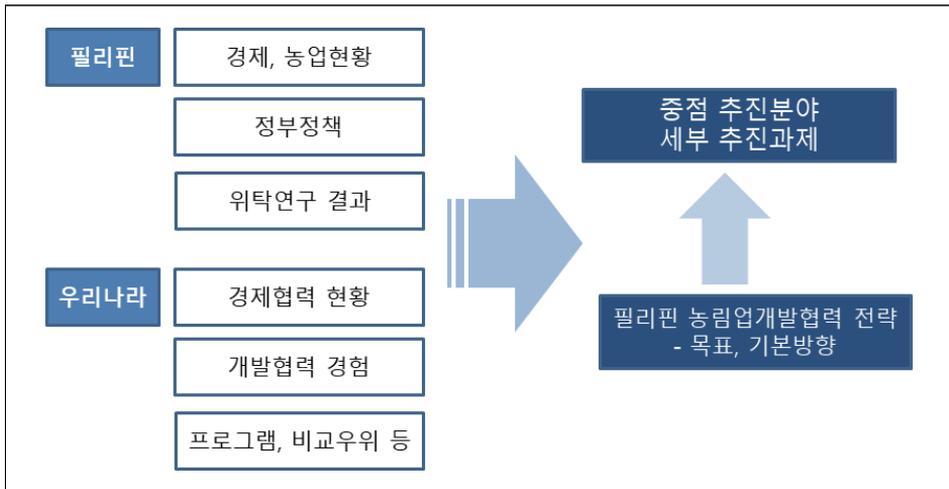
이 연구의 범위는 필리핀의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개발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양한 국내외 문헌과 통계자료, 그리고 개발협력 분야에서 구축되어있는 데이터베이스 등이 1차, 2차 자료로 사용되었다. 2020년 COVID-19로 인하여 현지 조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필리핀의 전국단위 연구기관인 필리핀 쌀연구산업과학재단(Philippine Science Foundation for Rice Research Industry)의 전문가에게 연구의 일부를 위탁하여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연구 기간은 2020년 7월부터 10월까지이다. 위탁연구 결과는 필리핀 측의 농업 현황, 특히 쌀과 관련한 현황과 개발협력 수요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온라인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필리핀 농업 분야 정책담당 공무원, 학계 전문가, 공공기관 종사자 등

이었고, 총 28명(국내 8명, 국외 20명)이 응답하였다. 내용은 필리핀과 관련하여 농업 가치사슬 협력의 단계별 중요도, 필리핀과의 협력을 위해 ‘한국형 ODA 모델’의 농업 분야 프로그램의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AHP 분석 프로세스를 통해 중요도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 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2020년 9월 21일에서 10월 23일까지이다.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필리핀의 국가 및 농업 현황, 필리핀에 대한 타 공여국, 공여기구들의 개발협력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 제3장에서는 필리핀의 전국적인 개발전략과 농업 분야에 특화된 전략, 정책들을 살펴보는데 특히 추진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필리핀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개발협력의 중점 추진 분야를 선정하고 제5장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세부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마지막 제6장은 앞의 논의들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 것으로 하였다.

〈그림 1-1〉 연구 흐름도



자료: 저자 작성.

4. 선행연구 검토

필리핀의 농업 부문과 관련한 정책연구로는 농업의 일반적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 및 전망을 제시한 것들이 있다.

김승준(2017)은 필리핀의 농업 현황과 정책을 분석하였다. 주요 농산물 생산 및 교역 현황을 파악하고 필리핀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농업개발정책을 평가하였다. 농업개발의 주요 정책인 농지개혁프로그램은 토지 소유자들의 강한 저항, 토지 부서의 분절화, 사업목표의 잦은 변동 등으로 완료되지 못했으며,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토지소유권의 인증서 발급 성과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농업개발의 문제점으로는 농업금융 서비스의 접근성 부족과 농업기계화 및 수확 후 관리시설의 미흡, 낮은 관개시설 보급률, 연구개발 투자 미흡, 취약한 농촌지도 서비스, 농어민 고령화 등으로 인한 낮은 농업생산성과 농업 생산품의 낮은 경쟁력 등을 제시하였다.

Ernesto O. Brown et al.(2018)은 필리핀 농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간략히 나열하고, 향후 5년 필리핀 농업 부문을 전망하였다. 필리핀 농업의 GDP 기여도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농업의 총부가가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업이 전체 고용의 26%를 차지하고 있는 등 농업은 아직까지 필리핀 내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필리핀은 다른 아세안 국가들보다 생산 작물이 다양하지 못하며 농업 생산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향후 5년간 필리핀 농업은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며, 필리핀 경제 호황을 통한 식량 수요증가로 인해 농민 소득이 증가하고,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농업 분야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농업 인프라 시설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이로 인해 감소된 농업 부문 노동력을 기계화를 통해 대체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식량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식품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자유무역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수입 식품과의 경쟁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농업 생산성 및 효율성 강화에 대한 압박이 더욱

커지고 이는 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와는 달리 쌀과 채소 등 주요 농작물에 초점을 맞추고 생산과 교역, 가치사슬의 측면에서 현황과 문제점, 개선 방향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김종선 외(2019)는 동남아 6개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맞춤형 협력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필리핀은 쌀 산업의 규모가 크지만, 매우 적은 쌀 수출량에 비해 쌀 수입량은 매년 300만 톤에 이르는 등 국내 수급 불안정을 겪고 있다. 현재까지 필리핀에 대한 ODA 사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며, 쌀 생산량 확대를 위한 수확 후 관리시설, 우수 종자 개발, 정보 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한 4개의 사업이 지원되었다. 향후 추진될 필리핀 쌀 관련 국제개발협력 사업은 쌀 생산성 제고와 쌀 가치사슬 개선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국내 쌀 수급 불안정을 겪고 있는 필리핀 쌀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우수품종 개발 및 보급 지원 △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자재 산업 지원 △ 농업기술보급 및 교육을 위한 지원 △ 한국 농기자재 업체와의 협력 등과 같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중점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박준근 외(2012)는 필리핀 쌀 산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쌀의 해외 수입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 및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필리핀 쌀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OLS 실증분석 결과, 1인당 GDP와 무역수지가 쌀 수입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쌀 생산의 저해요인으로는 이익 대비 높은 투입 비용, 병해충으로 인한 불확실성, 자연재해(태풍 및 가뭄), 가격의 불안정성, 낮은 금융 서비스 접근성 등이 있다. 필리핀 국내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R&D 투자, 관개시설 및 과학영농, 하부구조의 개선, 유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우수종자 보급, 농민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수요 측면에서는 균형 잡힌 식량경제를 위한 인구증가율의 감소와 전국적인 쌀 공급을 위한 효율적인 쌀의 유통구조 변혁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송주호(2014)는 식량안보와 필리핀 쌀 사례를 분석하고 필리핀의 식량안보를

달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필리핀은 연간 200만 톤의 높은 비중의 쌀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쌀 가격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쌀 자급률 제고 노력, 쌀에 대한 무역 보호, 쌀 적정재고 유지를 위한 국제 공조 등의 정책을 취하고 있다. 필리핀은 R&D(Research and Development) 확대, 수리시설 개보수, 하부구조의 개선을 위한 지출을 늘리고, 개도국에 허용되는 투입재 보조나 투자 보조, 품목 불특정 보조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Roxanne T. Aguinaldo et al.(2017)은 필리핀 다바오시(Davao City)의 채소 가치사슬 분석을 통해 유기농업 수행의 장애물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생산자, 도소매업체, 선적업체, 조달업체, 호텔 및 식당, 슈퍼마켓, 소비자 등 가치사슬 및 영농분야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도소매업체의 유기농 채소에 대한 인식이 낮으며, 이들은 화학제품 사용이 병해충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생산자는 열악한 인프라 시설, 제한적인 운송 서비스, 고비용의 인증 서비스, 가격 프리미엄의 부재, 비효과적인 지도보급 서비스 등 유통 및 거버넌스 부문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지금까지의 필리핀 유기농업 증진을 위한 노력은 채소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통합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생산자 측면에서의 유기농업 증진과 더불어 유기농업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생산 측면 이외에도 생산자 역량 강화부터 시장 개발에 이르기까지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거시적 접근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제2장

국가 및 농업 현황

국가 및 농업 현황

1. 국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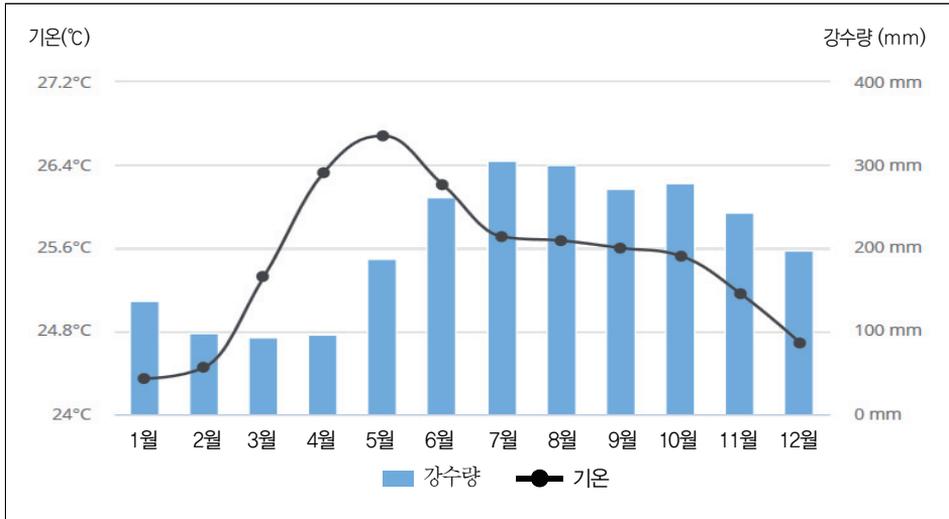
1.1. 일반 현황

필리핀의 정식 국가 명칭은 필리핀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으로, 지리적으로 서태평양에 위치한 총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의 섬나라이다. 북쪽의 루손 해협 건너편의 대만, 서쪽의 필리핀해, 동쪽의 남중국해 건너편의 베트남이 자리하고 있으며, 위도 13 00도(북위), 경도 122 00도(동경)에 위치하고 있다. 국토면적은 약 30만 km²로 한반도 면적의 1.3배 크기이며, 크게 북부의 루손(Luzon) 지방, 중부의 비사야(Visayas) 지방, 남부의 민다나오(Mindanao) 지방을 포함한 3개 지역으로 구분한다(허장 외 2017a: 188).

필리핀은 고온 다습한 아열대성 기후 지역으로, 6~11월의 우기와 12~5월의 건기로 나뉘며 강우량의 분포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유형1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고, 유형2는 건기 없이 12~2월에 집중적인 우기 기간이며, 유형3은 뚜렷한 우기가 없으며 1~3개월의 짧은 건기를 가지는 유형이며, 유형4는 연중 고르

계 비가 내리는 유형이다(허장 외 2017a: 192). 평균 기온은 섭씨 26.6도로 지역에 따라 21~32도에 이른다. 대부분 지역이 태풍의 주요 발생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7월부터 10월까지 천동 번개 및 폭우가 내리며, 연간 총 강수량은 약 965~4,064mm로, 산악지대는 평균 5,000mm, 계곡지역의 경우 1,000mm 미만이다(김승준 2017: 2).

〈그림 2-1〉 월별 평균 기온 및 강수량(1901~2016년)



자료: World Bank 웹사이트.¹⁾

필리핀의 총 인구는 1억 665만 명(World Bank, 2018 기준)이며 한국 대비 2배 수준으로, 세계에서 12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필리핀의 행정구역은 18개의 행정구역(Region)으로 구분되며 81개 주(Province)와 145개 시(City), 1,489개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 42,045개 동(Barangay)으로 나뉜다(PSA 2019a). 민족은 말레이족, 네그리토족, 인도네시아족, 중국계, 메스티소계 등의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언어는 타갈로그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필리핀의 종교는 스페인의 식민지배의 영향으로 국민 대부분이 가톨릭(83%)을 믿고 있으며, 개신교가 9%, 이슬람교가 5%를 차지하고 있다.

1) World Bank 웹사이트(<https://climateknowledgeportal.worldbank.org/country/philippines/climate-data-historical>, 검색일: 2020. 3. 31.).

〈그림 2-2〉 필리핀 지도



자료: CIA 웹사이트(<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rp.html>, 검색일: 2020. 3. 26.).

〈표 2-1〉 국가개황

구분	내용
국명	필리핀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면적	300,400km ² , 한반도의 1.3배
수도	메트로 마닐라(Metro Manila) • 인구 1,288만 명, 면적 638.6km ²
위치	위도 13 00 N, 경도 122 00 E
인구	1억 665만 명(2018년), 한국의 2배 • 남성: 53,601,488명(50.3%) • 여성: 53,050,434명(49.7%)
행정구역	18개 행정구(Region), 81개 주(Province), 145개 시(City), 1,489개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 42,045개 동(Barangay)으로 구분
민족(인종)	타갈로그인(28%), 비사야인(11%), 세부아노인(10%), 일로카노족(9%)
언어	영어 및 타갈로그어
종교	가톨릭(83%), 개신교(9%), 이슬람교(5%)
기후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기후
정부형태	대통령제(6년 단임제)
건국일	1898년 6월 12일(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
국가원수	•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Rodrigo Duterte) • 부통령: 마리아 레오노르 로브레도(Maria Leonor Robredo)

자료: 외교부²⁾, 한국수출입은행³⁾, CIA⁴⁾, World Bank⁵⁾, Philippines Statistical Yearbook 2019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1.2. 정치체제 및 현황

필리핀은 근세 유럽의 팽창과정에서 스페인의 식민지로 약 300여 년의 지배를 받았으며, 1898년 스페인-미국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한 이후 1898년부터 1946년

2) 외교부 웹사이트([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40&titleNm=국가정보\(필리핀공화국\)](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40&titleNm=국가정보(필리핀공화국)), 검색일: 2020. 3. 25.).

3)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http://211.171.208.44:8010/worldbook/countryInfo?area_cd=100&ctcd=PH, 검색일: 2020. 3. 25.).

4) CIA 웹사이트(<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rp.html>, 검색일: 2020. 3. 26.).

5) World Bank 웹사이트(<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TOTL?locations=PH&view=chart>, 검색일: 2020. 5. 21.).

까지 반 세기간 미국의 식민지배하에 있었다(권오신 2018: 544-545). 미국은 필리핀의 점진적 자치를 허용하여 1907년 최초의 의회 선거를 실시하고 1916년 양원제를 도입하였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필리핀의 값싼 농산물과 노동력이 미국에 유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으로부터 필리핀의 독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졌고, 1934년 필리핀 내 자치정부 수립과 10년 후 완전한 독립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인해 일본의 필리핀 식민통치가 시작되었다. 1944년 레이테섬 상륙작전으로 일본은 미국과의 전면전에서 항복함에 따라 일본의 점령기가 막을 내리고, 1946년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였다(외교부 2018: 5-6).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등 3권 분립 체제로 국가 조직을 이루었다.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대통령 중심제(6년 단임제)를 채택하였으며, 국회의 형태는 상원(24석) 및 하원(299석)으로 구성되는 양원제이다. 행정부는 미국의 제도와 유사하게 대통령과 부통령 그리고 각 부 장관(secretary)을 두고 있다. 내각은 대통령이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며, 대통령과 부통령은 임기 6년의 단임제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의회의 상원은 24명으로 구성되며 전국 투표를 통해 득표 순위에 따라 당선되며 6년의 임기를 가진다. 하원은 임기 3년으로 하원의원 정원의 20%를 정당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있다. 사법부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순회법원으로 구성되며 사법제도는 3심제도로 운영된다(조흥국 외 2011: 256-258).

주요 정당으로는 여당의 민주필리핀당, 야당의 자유당이 있으며, 그 외에 국민당, 국민통합당, 통합국민연합, 국민연합당, 필리핀 민주당이 있다. 필리핀 정당정치는 기반이 취약하고 선거나 정국 운영에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유력 인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소유한 소수 인물(가문)이 정권과 무관하게 정치 및 사회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책 중심이 아닌 유력 인물(가문) 위주의 형태로 운영된다. 정당별 정책 노선 차이가 없어 정당 간 이합집산의 모습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당에 대한 소속감이 약하여 선거를 전후로 소속 정당 교체도 빈번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외

교부 2018: 16).

필리핀은 약 4세기에 거쳐 긴 식민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경제 분야에서 미국의 완전한 시장이 되었고 정치 분야에서도 간접 지배를 받게 된다. 1965년 당선된 페르디난도 마르코스 대통령이 재선출되면서 약 20여 년간 장기 집권과 계엄령을 선포하며 독재 정치를 하게 된다.⁶⁾ 1960년 제1차 식민혁명(People Power I)에 의해 마르코스 대통령의 독재 정권이 종식되고, 2001년 제2차 시민혁명(People Power II)을 통해 부정부패와 뇌물로 국정을 운영하던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탄핵을 받게 된다(박병식 2017: 3). 두 차례의 시민혁명 이후 필리핀은 민주화를 달성하였으며, 2010년 6월 출범한 아키노 신정부는 부정부패 청산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상정하고 국가 개혁을 추진하였다(외교부 2018: 25).

현재는 제16대 두테르테 대통령(2016년 6월 취임)이 행정부를 수반하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필리핀 남부 다바오(Davao)시에서 20여 년 넘게 검사와 시장을 역임하였으며, 필리핀 역사상 첫 민다나오⁷⁾ 출신 대통령이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 퇴치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선정하여 경찰력을 동원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사형제 부활’ 재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두테르테 정부는 필리핀의 인프라 구축과 고도성장을 위해 해외 지원 및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수도권 및 지방의 교통망 개선 사업에 역점을 둔 ‘두테르테노믹스’를 추진 중이다(외교부 2018: 29).

필리핀 외교정책의 목표는 양자 및 다자 협력을 통한 국가안보 유지 및 제고, 경제발전을 위한 경제외교 강화, 필리핀 해외 근로자(Overseas Filipino Workers: OFWs)의 권익 보호이다. 8대 외교정책 방향으로는 1) 아시아 안보 및 경제발전에 중요한 미국, 일본, 중국과의 관계 중시 2) ASEAN과의 관계 속에서 필리핀의 외

6) 필리핀 관광부 한국사무소 웹사이트(<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more-info.aspx>, 검색일: 2020. 3. 27.).

7) 필리핀 내 대표적인 분쟁지역인 민다나오는 15세기 이래 이슬람교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필리핀 정부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며 대 정부 투쟁을 개시하였다. 1989년 주민투표를 통해 민다나오 자치기구(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를 창설하였다(박병식 2017; 외교부 2018).

교정책 결정 3) 이슬람권과의 관계 중시 4)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다자협력 및 지역협력 중시 5) 도서 국가로서 해양영토 주권을 포함한 국가 영토주권 확보 6) 경제발전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 7) 외국 관광객 유치 8) 필리핀 해외 근로자의 국가 경제 및 사회 안정에의 역할 중시에 있다(외교부 2018: 36).

한국과 필리핀은 1949년 수교하여 이후 70년간 전통적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 경제, 문화·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한국의 대동남아 무역과 투자 중 필리핀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양국 간의 인적 교류는 매우 활발하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8년 공식 방한하여 우리나라와 전통적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교통, 경제 통상,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과학 기술, 세부 신항만 건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였다(김동엽 2019: 99-100).

미국은 필리핀의 3대 교역상대국이자 주요 투자국으로, 두테르테 정부는 전통적인 대미관계를 유지 및 강화해가고 있다. 일본은 필리핀과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있으며 두테르테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적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필리핀은 중국의 경제발전과 국제적 위상 제고에 따라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된 언급을 자제하면서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외교부 2018: 39-41).

1.3. 경제 현황

필리핀의 인구와 산업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별 편차, 소득 수준별 격차 등 다방면에 걸쳐 격차가 큰 시장이다. 민간 소비가 국가 GDP의 70%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내수 위주의 시장이며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다. 필리핀 산업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다. 취약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소비재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6%대의 꾸준한 성장으로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개선되어 소비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다(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2016: 19).

두테르테 정부의 필리핀 경제 운영 방향은 국가 주도형 개발 정책으로, 주요 경제 정책으로는 ‘건설·건설·건설(Build, Build, Build: BBB)’ 정책과 환경 정책, 그리고 노동 정책이 있다. 2018년에는 GDP의 6.1%를 투입하여 35개의 주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해외자본 유치와 세제 개혁을 통한 세수 확대를 통해 국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여 건설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김동엽 2019: 90).

〈표 2-2〉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명목 GDP	억 달러	1,995	2,241	2,500	2,718	2,845	2,927	3,048	3,136	3,309
1인당 GDP (명목)	달러	2,155	2,379	2,591	2,768	2,849	2,882	2,953	2,989	3,104
1인당 GDP (PPP)	달러	5,549	5,773	6,126	6,559	6,971	7,348	7,806	8,348	8,942
GDP 성장률	%	7.6	3.6	6.6	7.0	6.1	6.0	6.8	6.6	6.2
소비자 물가지수	%	4.1	4.7	3.0	2.5	3.5	0.6	1.2	2.8	5.2
농업부문 경제성장률	%	11.4	1.2	3.9	10.3	-4.5	2.3	9.3	5.9	-3.9
제조업부문 경제성장률	%	3.8	8.4	8.8	10.3	4.0	8.2	8.0	11.4	5.2
서비스업부문 경제성장률	%	9.4	10.7	10.6	8.9	8.2	10.1	9.7	10.4	9.3
농업/GDP	%	12.3	12.7	11.8	11.3	11.3	10.3	9.7	9.7	9.7
제조업/GDP	%	32.6	31.3	31.2	31.1	31.3	30.9	30.7	30.4	30.6
서비스업 /GDP	%	55.1	55.9	56.9	57.6	57.3	58.8	59.6	59.9	59.8
수출액	백만 달러	51,496	48,305	52,099	56,698	62,101	58,648	57,406	68,712	69,307
수입액	백만 달러	58,469	64,097	65,836	65,740	68,705	74,750	89,435	101,900	119,329
경제활동 인구	천 명	38,893	40,005	40,426	41,022	40,881	41,762	43,360	42,774	43,459
경제활동 비율	%	41.3	41.8	41.5	41.4	40.6	40.8	41.8	40.6	40.7
실업률	%	7.3	7.0	6.9	7.0	6.8	6.2	5.4	5.7	5.3

자료: IMF⁸⁾; World Bank⁹⁾; PSA(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¹⁰⁾

필리핀의 GDP 수준만 보면 ASEAN 국가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뒤를 이어 3위이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필리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3,309억 달러이며, 6.2%의 경제성장률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1인당 국민소득은 3,104달러이지만, 필리핀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를 기준으로 하는 1인당 국민소득은 8,942달러로 매우 높은 경제 수준을 기록하였다.

소비자물가지수는 5.2%로 기상 악화로 인한 쌀 가격의 상승, 지나친 인프라 사업 추진과 세금 인상 등의 요인으로 9년 만의 최고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다(한국무역협회 2018: 3). 2019년에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평균 2.5%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식료품 가격 및 교통 요금 하락, 정부의 안정적인 물가 관리로 인해 안정화된 것으로 추정된다(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9: 4).

산업별 경제성장률은 2018년 기준 서비스업이 9.3%, 제조업 5.2%, 농업 -3.9%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 GDP 비중은 2018년 기준 서비스업이 59.8%로 가장 높고, 제조업 30.6%, 농업 9.7% 순으로 나타났다.¹¹⁾ 1980년대에 필리핀의 농수산업은 GDP의 30%가량 차지했으나 2018년에 10%대가 무너질 만큼 하락하였다.¹²⁾

최근 5년간 필리핀 경제는 6% 후반대 성장률을 보이며 2018년 6.2%에 이어 2019년 1분기에도 6.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 같은 경기 호황의 주요 동력으로는 수출 확대, 민간소비 활성화, 인구 증가, 인프라 사업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투자 등이 꼽힌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9).

8) IMF Data 웹사이트(<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8/02/weodata/weoselector.aspx?a=&c=566&t=1>, 검색일: 2020. 3. 27.).

9) World Bank Data 웹사이트(<https://data.worldbank.org/country/philippines?view=chart>, 검색일: 2020. 3. 27.).

10) PSA(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웹사이트(<https://openstat.psa.gov.ph/>, 검색일: 2020. 3. 27.).

11) PSA(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웹사이트(<http://openstat.psa.gov.ph>, 검색일: 2020. 4. 13.).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https://www.emerics.org:446/businessDetail.es?brdctsNo=306975&mid=a104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검색일: 2020. 9. 1.).

〈표 2-3〉 주요 해외송금액

단위: 백만 달러(USD)

	2014	2015	2016	2017	2018
전체	24,628	25,606	26,899	28,059	28,943
미국	7,403	8,408	8,931	9,422	9,986
사우디아라비아	2,843	2,844	2,630	2,508	2,230
아랍에미리트연합	2,224	2,030	2,155	2,540	2,035
싱가포르	1,401	1,505	1,657	1,754	1,848
일본	1,418	1,222	1,362	1,468	1,514
참고: 대한민국	179	219	220	282	339

자료: BSP(Central Bank of the Philippines) 웹사이트 참조.¹³⁾

필리핀 경제성장의 동력은 크게 해외 근로자 송금액, BPO(Business Processing Outsourcing)¹⁴⁾ 산업, 인프라 산업이다. 필리핀은 해외 근로자가 전체 인구의 10%에 이르며, 중국, 인도, 멕시코와 함께 세계 4대 해외 인력 송출국이다. 해외 근로자의 국내 송금액은 전체 GDP의 8.7%를 차지(2017년 281억 달러)할 정도로 필리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특히 풍부한 외환 보유를 유지하게 하여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불황 속에서도 외풍을 차단하고 국내 소비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BPO 산업은 필리핀의 풍부한 영어 구사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바탕으로 2010년 인도를 제치고 “콜센터의 천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최적의 투자지로 부상하였다. 두테르테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2022년까지 GDP의 7.4%까지 인프라 관련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외교부 2018: 64).

13) BSP(Central Bank of the Philippines) 웹사이트(<http://www.bsp.gov.ph/PXWeb2007/dialog/statfile1.asp>, 검색일: 2020. 4. 14.).

14) BPO 산업은 기업의 비핵심 사업을 제3자 서비스 제공업체에 하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객 서비스, 인사 관리 및 고객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회사를 고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기업은 제품 개발 및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출처: KOTRA 웹사이트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5035&searchNationCd=101080>, 검색일: 2020. 4. 27.).

〈표 2-4〉 필리핀의 대외거래 및 외채현황

구분	단위	2014	2015	2016	2017	2018
환율 (연평균)	PHP/ US\$	44.4	45.5	47.5	50.4	52.7
경상수지	백만 달러	10,758	8,396	△1,199	△2,143	△8,729
상품수지	백만 달러	△17,331	△21,698	△35,548	△40,215	△50,972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72,322	73,912	71,853	71,598	69,382
총외채잔액	백만 달러	77,700	77,500	74,763	73,098	86,100
단기외채	백만 달러	16,248	16,368	14,526	14,275	16,7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세계국가편람(2017, 2020).

필리핀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3년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관광업과 BPO 사업, 해외 근로자 송금에 따른 서비스 수지 및 경상이전수지 흑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이후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이 급증하면서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2018년 87억 달러(GDP의 △2.6%)까지 적자폭이 확대되었으나, 2019년에는 해외 근로자 송금에 의한 경상이전수지 및 서비스수지 흑자 증가로 적자폭이 46억 달러(GDP의 △1.3%) 수준으로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투자심리 저하,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 경상수지 적자 누적 등의 영향으로 필리핀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있으며, 중국의 경기침체 및 미·중 간의 무역 긴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향후 폐소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9: 5-6).

필리핀의 수출입은 2016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미국은 필리핀의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수출액은 105.5억 달러이며, 필리핀 전체 총 수출의 15.6%를 차지하고 있다. 필리핀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는 홍콩, 일본, 중국, 싱가포르, 한국(8위) 등이 있다. 2018년 기준 필리핀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수입액은 225.7억 달러로 필리핀 총 수입의 19.6%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은 한국(2위), 일본, 미국, 태국 등이 있다.

2018년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전자직접회로, 자동차료처리 기계 및 단위기기,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관련 반도체 디바이스, 절연 전선 및 케이블, 수송용 선박 등이 있다. 전자 및 반도체의 경우 다국적 전자회사¹⁵⁾가 다수 진출해 있으며,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다. 주요 수입 품목은 전자집적회로, 석유류, 승용차, 석탄, 전자 사무용 기기부품, 구리광, 항공기 등이 있다.

〈표 2-5〉 10대 교역 대상국(2018년)

단위: 백만 달러(USD)

국가 순위	수입			수출		
	국가	액수	비중(%)	국가	액수	비중(%)
1	중국	22,579	19.6	미국	10,550	15.6
2	한국	11,503	10.0	홍콩	9,554	14.1
3	일본	11,396	9.9	일본	9,473	14.0
4	미국	8,297	7.2	중국	8,698	12.8
5	태국	7,948	6.9	싱가포르	4,234	6.2
6	인도네시아	6,789	5.9	독일	2,808	4.1
7	싱가포르	6,310	5.4	태국	2,716	4.0
8	말레이시아	4,285	3.7	한국	2,542	3.7
9	베트남	3,225	2.8	네덜란드	2,480	3.6
10	홍콩	3,198	2.1	말레이시아	1,929	2.8

자료: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2018) 웹사이트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¹⁶⁾

〈표 2-6〉 필리핀 10대 수출입 품목(2019년)

단위: 백만 달러(USD)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품목	금액
1	전자직접회로	13,712	전자직접회로	16,913
2	그 밖의 전자기기	6,611	석유와 역청유(원유제외)	6,092
3	자동차료처리기계 및 단위기기	4,376	석유와 역청유(원유한정)	5,161

15)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 삼성전자, 산요(Sanyo), 인텔(Intel) 등.

16)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웹사이트(<https://wits.worldbank.org/CountryProfile/en/Country/PHL/Year/2018/TradeFlow/Import/Partner/by-country#>, 검색일: 2020. 3. 20.).

(계속)

순위	수출		수입	
	품목	금액	품목	금액
4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2,956	승용차	3,703
5	변압기·정지형 변환기	2,083	전화기	2,618
6	인쇄기, 복사기·팩시밀리, 부분품 및 부속품	2,042	그 밖의 항공기 (헬리콥터 등, 우주선 등)	2,011
7	절연전선 및 케이블	1,955	전자계산기 및 사무용 기계 부품	1,866
8	바나나	1,505	석탄, 연탄·조개탄	1,849
9	전자계산기 및 사무용 기계 부품	1,356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1,836
10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화물선·부선 등 유사 선박	1,214	화물자동차	1,762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 5) 재인용.

전자, 반도체 제조를 위한 중간재 수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필리핀의 산업구조를 반영¹⁷⁾하고 있다. 그 외 광물연료 수입과 기계, 철강 등 자본재 수입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산 수입 주요 품목으로는 전자부품, 광물성 연료, 수송기계, 비철금속제품, 정밀화학제품, 철강제품 등이 있으며, 13대 주력품목(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섬유류, 철강제품, 일반기계, 자동차, 자동차부품, 선박류,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가정용 전자제품,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의 수입 비중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0: 13).

2018년 기준 한국과 필리핀의 총 교역액은 156.1억 달러로 전년 대비 9.16% 증가하였다. 수출은 120.4억 달러(13.6% 증가), 수입은 35.7억 달러(3.6%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무역수지는 84.7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22.9% 증가하였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0: 19).

17) 전체 수출의 70% 이상을 전자, 반도체가 차지하며 다국적 기업이 중심이다.

〈표 2-7〉 한국-필리핀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USD)

구분	2016	2017	2018
총계	10,505	14,296	15,606
수출	7,277	10,594	12,037
수입	3,228	3,702	3,569
수지	4,049	6,892	8,468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9: 7) 재인용.

필리핀은 빈부격차에 따른 소득 양극화가 극심한 시장으로, 고소득층의 20%가 국민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최하위층 20%가 국민소득의 5% 미만만을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공산품을 비롯한 소비재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제품 유통에 대한 일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이 높아 제한적인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다. 반도체, 전기 전자, 자동차 및 부품 분야의 가공무역 투자가 활발하며, 현지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하여 인근 국가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필리핀 수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박병식 2017: 4260).

두테르테 대통령은 외국인 투자 지분 상한선을 확대(40% → 70%)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확대하였으며,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추진하였다. 또한 한-아세안 FTA에 따라 2016년부터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0~5%로 인하되었고, 필리핀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상승하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한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8: 8-23).

1.4. 사회 현황

필리핀의 인구는 2020년 기준 1억 918만 명(CIA 추정)으로 세계 12위, 동남아시아 2위에 해당하며 인구증가율은 2000~2015년 평균 1.84%로 2012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PSA 2019a). 전체 연령별 인구의 경우, 0세에서 14세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32.4%인 약 3,539만 명, 15세에서 24세 인구는 전체 인구 대

비 19%인 2,092만 명, 25세에서 54세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37.3%인 약 4,080만 명, 55세에서 64세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6.1%인 약 674만 명, 65세 이상은 전체 인구 대비 4.8%인 약 531만 명이다. 필리핀의 중위연령(median age)은 24.1세¹⁸⁾로 젊은 나라에 속하며, 개발도상국 형태의 인구 피라미드 모양을 가지고 있다.

〈표 2-8〉 필리핀의 인구·사회·문화 현황

항목	내용
연령 및 성별 인구 분포	0~14세: 32.42%(남 18,060,976명/여 17,331,781명) 15~24세: 19.16%(남 10,680,325명/여 10,243,047명) 25~54세: 37.37%(남 20,777,741명/여 20,027,153명) 55~64세: 6.18%(남 3,116,485명/여 3,633,301명) 65세 이상: 4.86%(남 2,155,840명/여 3,154,166명)
여성 1명 대비 남성의 수	1.06명
평균수명	70세(남성: 66.5세, 여성: 73.8세)
문자해독률	98.2%(15세 이상)
유아 사망률	20명(1,000명 당)
인간개발지수(HDI)	0.712(106위)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비율	91.8%(도시 90.3%, 농촌 90.3%)
도로 보급률(2014년)	전체도로: 216,387km 포장도로: 61,093km 비포장도로: 155,294km
주요 사회개발지표	인터넷 사용자 비율 60.1%, 휴대폰 사용자 비율 110명(백 명당), 식수 접근율 94%

주: 2020년 추정치.

자료: UNDP Human Development Data,¹⁹⁾ CIA²⁰⁾ 웹사이트를 토대로 저자 작성.

18) CIA 웹사이트(<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rp.html>, 검색일: 2020. 5. 12.).

19) UNDP 웹사이트(<http://hdr.undp.org/en/countries/profiles/PHL>, 검색일: 2020. 3. 31.).

20) CIA 웹사이트(<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rp.html>, 검색일: 2020. 5. 12.).

평균수명은 70세(세계 166위)이며, 문자 해독률은 98.2%, 유아사망률은 1,000명당 20명(세계 77위)이다. 필리핀의 총 도로망의 길이는 216,387km이며, 포장도로는 61,093km로 전체 도로 중 28.2%에 해당한다. 인터넷 사용자 비율 60.1%, 식수 접근율 94%이다.

필리핀은 최근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필리핀 내 빈부격차가 여전히 심화되고 있어 빈곤 감소는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빈곤율은 2018년 16.6%로 ASEAN 지역에서 라오스, 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데, 1억 명이 넘는 인구수를 고려할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²¹⁾ 필리핀의 주요 사회개발지표인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come: HDI)는 0.712로 전체 189개 국가 중 106위를 차지하였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필리핀의 HDI는 0.593에서 0.718로 21.1% 상승하였으나,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균 HDI인 0.747보다 낮은 수치이다(UNDP 2020: 3-4).

지역별 인구로는 2018년 기준 카라바르손 지역이 인구수가 가장 많고, 코르디예라 행정구 지역이 인구수와 인구밀도가 가장 낮다. 북서부 및 중부 루손, 비사야, 세부 및 네그로스섬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며, 특별히 마닐라 지역에는 필리핀 전체 인구의 1/8이 거주하고 있다.²²⁾

2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https://www.emerics.org:446/businessDetail.es?brdctsNo=306975&mid=a104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검색일: 2020. 9. 1.).

22) CIA 웹사이트(<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rp.html>, 검색일: 2020. 5. 12.).

〈표 2-9〉 필리핀의 지역별 인구

단위: 천 명

지역	2014	2015	2016	2017	2018
필리핀 전체	99,880	101,562	103,243	104,922	106,599
수도권	12,799	12,652	12,788	12,919	13,045
코르디에라 행정구	1,740	1,784	1,815	1,847	1,880
일로코스	5,011	5,136	5,200	5,263	5,325
카기얀 밸리	3,430	3,498	3,547	3,596	3,644
중부 루손	11,026	11,099	11,264	11,427	11,588
카라바르손	14,200	14,127	14,394	14,659	14,922
미마로파	2,946	3,089	3,153	3,216	3,281
비콜	5,775	6,032	6,148	6,267	6,388
서(西)비사야	7,532	7,704	7,812	7,920	8,029
중앙 비사야	7,336	7,447	7,568	7,690	7,811
동(東)비사야	4,337	4,537	4,620	4,705	4,792
삼보양가 반도	3,668	3,765	3,830	3,896	3,963
북(北)민다나오	4,659	4,707	4,782	4,857	4,933
다바오	4,830	4,963	5,058	5,153	5,248
소크사르젠	4,524	4,599	4,690	4,780	4,871
카라가	2,591	2,717	2,772	2,829	2,886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	3,476	3,707	3,801	3,897	3,995

자료: PSA(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웹사이트를 토대로 저자 작성.²³⁾

2. 농업 현황

2.1. 농업 생산

필리핀의 농업생산지수는 1980년 이후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축산 부문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생산지수가 3배 이상 증가하며 곡물 분야와 함께 농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23) PSA(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웹사이트(<http://openstat.psa.gov.ph/>, 검색일: 2020. 4. 22.).

〈표 2-10〉 농축산물 생산지수

단위: Int. \$

구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농업(Agriculture)	54.6	55.2	67.4	76.6	86.0	99.3	111.9	115.8
곡물(Cereals)	52.4	61.2	70.7	71.6	83.2	97.9	107.8	124.5
작물(Crops)	59.3	61.6	73.1	80.3	86.5	99.6	110.0	112.5
축산(Livestock)	38.9	34.1	48.2	64.2	84.2	98.5	118.2	126.9

주: 각 생산지수는 2004 - 2006 = 100을 기준으로 함.
 자료: FAO(1980~2015). 「FAOSTAT」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²⁴⁾

필리핀 농업 부문은 2018년 기준 총 GDP의 9.7%를 차지하고 있으며 0.59%의 성장률을 보인 가운데 작물 및 수산 분야에서 각각 △0.99%, △0.98%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지만, 축산 및 가금 분야에서 각각 1.9%, 5.75%의 플러스 성장률을 나타냈다. 농수산의 각 세부 분야를 보면 농작물이 50%, 축산 및 가금류가 34%, 수산이 16%를 차지하고 있다.

〈표 2-11〉 농업생산 현황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농업	생산액 백만 페소	731,489	747,353	768,836	777,457	787,607	789,735	779,037	809,940	814,695
	성장률 %	△0.44	2.17	2.87	1.12	1.34	0.27	△1.35	3.97	0.59
작물	생산액 백만 페소	363,718	380,906	396,342	396,351	405,583	398,264	385,423	411,285	407,213
	성장률 %	△2.63	4.73	4.05	0.00	2.37	△1.80	△3.22	6.71	△0.99
축산	생산액 백만 페소	120,268	122,679	124,041	126,216	127,538	132,402	138,489	140,038	142,696
	성장률 %	1.45	2.01	1.11	1.75	1.05	3.81	4.60	1.12	1.90
가금	생산액 백만 페소	100,965	105,379	110,136	114,859	115,164	121,804	123,488	129,192	136,625
	성장률 %	3.80	4.37	4.51	4.29	0.29	5.77	1.38	4.62	5.75
수산	생산액 백만 페소	146,538	138,389	138,318	140,030	139,323	137,265	131,637	129,425	128,162
	성장률 %	0.82	△5.56	△0.05	1.24	△0.43	△1.48	△4.10	△1.68	△0.98

자료: PSA(2019b)를 토대로 작성.

24) FAO STAT 웹사이트(<http://www.fao.org/faostat/en/#data/QI>, 검색일: 2020. 6. 25.).

주요 재배작물로는 사탕수수, 쌀, 코코넛, 바나나, 옥수수, 파인애플 등이 있으며, 최근 사탕수수 재배가 급증하며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필리핀의 쌀 생산은 2018년 1,906만 6,000톤으로 전년 대비 1.08% 감소하였으며, 생산 면적은 480만 ha, 생산액은 73억 1,1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2-12〉 주요 작물별 생산 현황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사탕 수수	생산 면적	천 ha	354	439	433	437	432	421	410	437	437
	생산량	천 톤	17,929	28,376	26,395	24,584	25,029	22,926	22,370	29,286	24,730
	생산액	백만 달러	854	1,297	1,006	944	902	947	937	874	774
벼	생산 면적	천 ha	4,354	4,536	4,690	4,746	4,739	4,656	4,556	4,811	4,800
	생산량	천 톤	15,772	16,684	18,032	18,439	18,967	18,149	17,627	19,276	19,066
	생산액	백만 달러	5,090	5,870	6,917	7,415	8,519	6,836	6,413	6,946	7,311
코 코 넛	생산 면적	천 ha	3,575	3,562	3,574	3,551	3,502	3,517	3,565	3,612	3,628
	생산량	천 톤	15,510	15,244	15,863	15,354	14,696	14,735	13,825	14,049	14,726
	생산액	백만 달러	1,801	2,791	2,103	1,938	2,363	2,111	2,288	2,394	1,742
바 나 나	생산 면적	천 ha	449	450	454	446	442	443	442	446	447
	생산량	천 톤	9,101	9,165	9,226	8,646	8,884	9,083	8,903	9,166	9,358
	생산액	백만 달러	2,360	2,367	2,547	2,760	2,943	2,996	3,104	2,929	3,016
옥 수 수	생산 면적	천 ha	2,499	2,544	2,593	2,563	2,611	2,561	2,484	2,552	2,511
	생산량	천 톤	6,376	6,971	7,407	7,377	7,770	7,518	7,218	7,914	7,771
	생산액	백만 달러	1,545	2,024	2,229	2,123	2,264	2,032	1,796	1,870	2,072
파 인 애플	생산 면적	천 ha	58	58	58	60	61	62	65	66	66
	생산량	천 톤	2,169	2,246	2,397	2,458	2,507	2,582	2,612	2,671	2,731
	생산액	백만 달러	241	330	413	411	444	460	496	505	516

자료: PSA(2015, 2019b)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필리핀은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쌀 자급자족을 위한 주곡식량자급프로그램(Food Staple Sufficiency Program)을 실시하여 주요 농작물인 쌀, 옥수수, 카사바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프리미엄급 쌀 수출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해외농업개발협회 2014: 50).

주요 생산 농산물은 국내용 식량작물인 쌀, 옥수수와 필리핀의 기후 특성으로 인해 생산되는 코코넛, 사탕수수, 커피, 바나나, 파인애플 등 수출용 작물로 구분된다. 주곡인 쌀 산업은 농업 전체 부가가치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옥수수는 쌀 대체 식량작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임정빈 2003: 4).

쌀은 필리핀 주요 식량작물로 국가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필리핀은 세계 8위 규모의 쌀 생산국(세계 총 쌀 생산의 약 2.8%)인 동시에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이다. 필리핀의 쌀 재배면적은 480만 ha로 연중 벼 재배가 가능한 지역임에도 쌀 자급을 실현하지 못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1980년대까지도 필리핀은 쌀 자급뿐만 아니라 일부를 수출하기도 하였으나 1990년대 태국, 베트남 등에 비해 쌀 가격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수입에 의존하기 시작하였다. 한정된 토양 자원과 태풍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인근 동남아시아 국가에 비해 낮으며(베트남의 약 58%, 태국의 약 52% 수준)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ha당 3.97톤 정도이다. 특히 농지개혁의 실패, 농업에 대한 투자를 오랜 기간 소홀히 하면서 쌀 순수입국으로 전락하였다(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6: 16; 김승준 2017: 7).

옥수수는 필리핀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식량작물로 주식으로 섭취하거나 가축의 사료, 콘 시럽, 전분, 콘 오일, 글루텐 및 스넥으로 사용된다(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6: 17). 옥수수 생산은 2018년 7,771천 톤이며, 생산 면적은 2,511천 ha에 해당한다.

〈표 2-13〉 지역별 주요작물 생산비율(2018년)

단위: %

지역	사탕 수수	벼	코코넛	바나나	옥수수	파인 애플	망고	커피
필리핀 전체 생산량 (단위: 천 톤)	24,730	19,066	14,726	9,358	7,771	2,731	711.7	60.3
루손지역	12.5	58.2	26.3	8.1	40.7	10.5	45.0	11.1
- 수도권	0.1	2.6	0.1	0.2	2.6	0.03	0.3	3.6
- 일로코스	0.1	9.0	0.2	0.4	7.2	0.01	23.5	0.2
- 카가얀 밸리	1.6	12.4	0.5	3.7	20.9	1.4	6.6	1.4
- 중부 루손	3.1	18.9	0.7	0.5	3.5	0.07	6.2	1.7
- 카라바르손	6.7	2.2	11.4	1.2	1.1	3.4	5.7	3.4
- 미마로파	-	6.4	5.3	1.1	1.6	0.02	2.2	0.2
- 비콜	0.9	7.0	8.0	0.8	3.6	5.5	0.3	0.3
비사야	70.5	18.3	13.7	7.9	6.6	1.1	17.3	7.4
- 서(西)비사야	59.4	11.7	3.3	3.2	4.0	0.6	6.8	7.0
- 중앙 비사야	9.8	1.6	3.0	2.2	1.6	0.2	10.3	0.3
- 동(東)비사야	1.2	4.9	7.4	2.5	0.9	0.2	0.07	0.1
민다나오	16.8	23.4	59.8	83.9	52.6	88.3	37.6	81.4
- 삼보양가 반도	a/	3.8	12.0	2.7	3.3	0.04	11.0	0.8
- 북(北)민다나오	12.4	3.9	12.4	20.8	16.5	57.5	7.1	9.5
- 다바오	1.5	2.5	13.1	37.9	3.5	0.9	7.5	17.9
- 소크사르젠	2.3	7.0	7.7	12.9	15.8	29.5	7.3	33.0
- 카라가	a/	2.6	5.4	3.0	1.7	0.1	2.6	2.7
-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	0.4	3.3	9.0	6.3	11.6	0.03	2.0	17.3

주: a/ 0.005 이하.

자료: PSA(2019b)를 토대로 작성.

주요 작물의 지역별 생산을 살펴보면, 루손지역에서는 쌀(58.2%), 옥수수(40.7%), 망고(45%)가 생산되고 있으며 비사야 지역에서는 사탕수수(70.5%), 민다나오 지역에서는 코코넛(59.8%), 바나나(83.9%), 옥수수(52.6%), 파인애플(88.3%), 커피(81.4%) 등이 주로 생산되고 있다.

〈표 2-14〉 주요 종족별 사육 현황

단위: 천 마리

연도	물소	소	돼지	염소	닭	오리
2010	3,270	2,571	13,398	4,178	158,984	10,268
2011	3,075	2,518	12,303	3,882	162,813	10,126
2012	2,964	2,493	11,863	3,715	164,192	10,011
2013	2,913	2,498	11,843	3,694	166,386	10,135
2014	2,847	2,512	11,802	3,696	167,671	9,886
2015	2,855	2,534	12,000	3,674	176,469	10,067
2016	2,877	2,554	12,479	3,663	178,793	10,519
2017	2,882	2,548	12,428	3,710	175,317	10,842
2018	2,883	2,554	12,604	3,725	175,772	11,220

자료: PSA(2015, 2019b)를 토대로 작성.

필리핀의 주요 가축은 닭, 돼지, 오리, 염소, 물소, 소이다. 전체 생산량은 2018년 기준 가축 2,826천 톤, 가금류 1,867천 톤으로, 지속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물소는 점차 생산 두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닭의 사육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2. 농지

필리핀 국토 면적은 2016년 기준 298,170km²이며 농지 면적은 124,400km²로 전체 면적의 41.7%에 해당한다. 농경지 면적은 2016년 기준 559만 ha로 농경지 면적 비중은 국토 면적 대비 18.7%, 농지면적 대비 44.9%이며 1인당 농경지 면적은 0.053ha에 불과하다. 556만 농가 기준으로 보면 57%가 1ha에 미치지 못하는 농지를 경작한다.²⁵⁾

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https://www.emerics.org:446/businessDetail.e?s?brdctsNo=306975&mid=a104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검색일: 2020. 9. 1.).

〈표 2-15〉 농업면적 현황

국토면적 (km ²)	농지면적 (km ²)	농지 면적비중 (국토면적 대비, %)	농경지 면적 (만 ha)	농경지 면적비중 (국토면적 대비, %)	농경지 면적비중 (농지면적 대비, %)	1인당 농경지 면적 (ha)	관개율 (농지면적 대비) (%)
298,170 (2018년)	124,400 (2016년)	41.7 (2016년)	559 (2017년)	18.7 (2017년)	44.9 (2016년)	0.053 (2016년)	9.2 (2011년)

자료: World Bank Data,²⁶⁾ FAO STAT²⁷⁾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총 관개면적은 약 188만 ha로, 중앙 루손(Central Luzon) 지역이 30만 ha(약 16%), 카가얀 밸리(Cagayan Valley) 지역이 21만 ha(약 11%), 일로코스(Ilocos) 지역이 18만 ha(약 10%)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필리핀 북쪽에 위치한 루손(Luzon) 지역은 농업이 가장 발달한 곳으로 주로 쌀, 옥수수, 코코넛, 사탕수수, 망고, 바나나 등을 생산하고 있다(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16: 14).

필리핀은 소규모 농가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중·대규모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 비해 생계 또는 상업용의 목적으로 가구당 평균 2ha의 농경지를 소유하거나 임대 경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필리핀 정부가 농지개혁프로그램(Comprehensive Agrarian Reform Programme: CARP)을 시행함으로써 90년대 후반부터 소규모 농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김승준 2017: 6-7).

2.3. 농업, 농촌인구

필리핀의 총 인구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억 600만 명 수준이며, 그중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는 5,66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3%에 해당한다. 2018년 도시 인구는 2010년 대비 14.9%가 증가하였고 농촌 인구는 9.3%가 감소하여, 농촌 인구의 도시화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농촌 지역의 노동 인구는 2018년 기준 2,402만

26) World Bank Data 웹사이트(<https://data.worldbank.org/country/philippines>, 검색일: 2020. 5. 13.).

27) FAO STAT 웹사이트(<http://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0. 4. 9.).

명으로, 전체 노동 인구의 54.7%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 부문의 취업 인구는 2018년 기준 1,000만 명이며, 총 고용의 25.1%로 큰 비중을 차지하나 대부분 지방의 소농장에서 종사하고 있다.

필리핀 전체 GDP 중에서 농수산업의 비중이 10% 미만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동인구 가운데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25%(2019년)로 제조업 종사 인구 비율(18.4%)보다 높다.²⁸⁾ 농업 분야의 고용 비율은 총 고용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고용률은 높은 반면, 농업종사 인구의 소득수준은 일반고용 노동 층의 1/3 수준으로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15).

〈표 2-16〉 도시-농촌 인구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도시	천 명	42,597	43,505	45,437	45,385	46,329	47,262	48,177	49,096	50,027
	%	45.3	45.5	45.7	45.9	46.0	46.2	46.4	46.6	46.9
농촌	천 명	51,369	52,064	52,774	53,486	54,183	54,851	55,486	56,076	56,624
	%	54.6	54.4	54.2	54.0	53.9	53.7	53.5	53.3	53.0

주: 도시, 농촌 인구를 합한 총 인구는 〈표 2-17〉의 필리핀 통계청 자료와 상이함.
 자료: World Bank Data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²⁹⁾

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홍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https://www.emerics.org:446/businessDetail.es?brdctsNo=306975&mid=a104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검색일: 2020. 9. 1.).

29) World Bank Data 웹사이트(<https://data.worldbank.org/country/philippines>, 검색일: 2020. 4. 13.).

〈표 2-17〉 농업인구 현황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인구	만 명	9,260	9,482	9,651	9,819	9,988	10,156	10,324	10,492	10,659
총 노동인구	만 명	3,857	3,989	4,048	4,118	4,251	4,301	4,386	4,300	4,386
농촌 노동인구	만 명	1,983	2,040	2,072	2,102	2,150	2,198	2,358	2,323	2,402
농업 부문 취업인구	만 명	1,196	1,227	1,209	1,184	1,180	1,129	1,106	1,026	1,000
농업 부문 취업률 (총취업자 대비)	%	33.1	32.7	32.1	31.0	30.4	28.7	27.0	25.4	25.1

자료: World Bank Data,³⁰⁾ ILO STAT,³¹⁾ PSA³²⁾ 웹사이트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구성.

2.4. 농산물 교역

필리핀 농산물 전체 교역은 2018년 기준 202억 19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수출은 61억 17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7% 감소하였고, 수입은 141억 2백만 달러로 19.8% 증가하였으며 무역수지는 79억 84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표 2-18〉 농산물 교역 현황

단위: 백만 달러(USD)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출(FOB)	4,101	5,431	5,037	6,400	6,542	5,131	5,280	6,579	6,117
수입(CIF)	7,399	7,839	8,168	7,931	9,631	10,965	12,518	11,762	14,102
상품 수지	△3,298	△2,408	△3,130	△1,531	△3,088	△5,833	△7,238	△5,182	△7,984

자료: PSA(2015, 2019b)를 토대로 작성.

30) World Bank Data 웹사이트(<https://data.worldbank.org/country/philippines>, 검색일: 2020. 4. 13.).

31) ILO STAT 웹사이트(https://www.ilo.org/shinyapps/bulkexplorer41/?lang=en&segment=indicator&id=EAP_2EAP_SEX_AGE_GEO_NB_A, 검색일: 2020. 5. 13.).

32) PSA 웹사이트(<http://openstat.psa.gov.ph/>, 검색일: 2020. 4. 22.).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 수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포괄주의 체제(Negative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 및 축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농업 부문의 보호주의 조치로는 고율관세, 쿼터 및 비관세 장벽 형성 등 다양하며 쌀에 대한 총량 규제, 설탕 생산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고도의 규제, 쌀 및 옥수수 등에 대한 가격지지 정책 등이 주요 내용이다.³³⁾

〈표 2-19〉 주요 품목별 농산물 수출액

단위: 백만 달러(USD)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코코넛오일	1,265	1,425	1,041	1,005	1,220	1,168	1,151	1,614	1,075
바나나	319	472	646	962	1,129	657	730	1,128	1,382
참치	359	314	455	681	501	350	277	521	495
파인애플	242	345	414	425	434	574	710	582	443
담배(가공)	161	199	157	248	325	207	161	188	298
코코넛	152	286	197	198	254	160	210	340	338

자료: PSA(2015, 2019b)를 토대로 작성.

농산물 주요 수출 품목은 바나나, 코코넛 오일, 참치, 파인애플, 담배(가공), 코코넛 등이며, 2018년 기준 농산물 주요 수출국으로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 호주 등이 있다.

33) 제약산업정보포털 웹사이트(<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8&rowCnt=10&menuId=MENU01835&maxIndex=00487616809998&minIndex=00138386709998&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upDown=0&board-Style=&no1=&linkId=48760466>, 검색일: 2020. 5. 14.).

〈표 2-20〉 주요 교역대상국별 수출액(2018년)

구분	수출국	수출량 (천 톤)	수출액 (백만 달러, \$)	비율 (%)
코코넛오일	미국	392.3	480.1	44.6
	네덜란드	331.8	351.3	32.6
	스페인	47.5	47.7	4.4
	중국	32.1	39.7	3.7
	일본	29.5	35.6	3.3
바나나	중국	1,165.8	496.2	35.9
	일본	944.7	485.2	35.1
	대한민국	387.9	192.2	13.9
	아랍에미리트 연방	195.6	61.3	4.4
	이란	162.6	47.7	3.4
참치	일본	14.8	79.3	16.0
	영국	18.8	78.4	15.8
	독일	68.8	68.8	13.9
	스페인	15.7	57.1	11.5
	미국	11.4	54.1	10.9
파인애플	미국	197.8	142.9	32.2
	일본	167.2	73.7	16.6
	중국	92.0	45.4	10.2
	대한민국	90.8	44.9	10.1
	네덜란드	11.8	15.7	3.5
담배(가공)	태국	10.7	83.2	27.8
	대한민국	7.0	69.5	23.2
	말레이시아	35.5	56.7	19.0
	싱가포르	4.2	34.2	11.4
	베트남	7.6	27.0	9.0
코코넛	미국	41.4	100.7	29.7
	네덜란드	21.3	49.7	14.7
	호주	8.1	21.2	6.2
	캐나다	7.5	17.2	5.1
	영국	7.5	17.1	5.0

자료: PSA(2019b)를 토대로 작성.

농산물 주요 수입 품목은 밀, 콩기름, 우유, 쌀, 커피, 비료제조 등이다. 지난 8년간 쌀의 수입액은 크게 감소하였고, 밀, 콩기름, 우유, 커피, 비료제조의 수입액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쌀은 2010년 이후 수입액이 크게 감소하여 2018년 기준 8억 69백만 달러를 수입하였고 주로 태국과 베트남에서 각각 전체 쌀 수입의 46.1%, 40.7%를 수입하고 있다.

〈표 2-21〉 주요 품목별 농산물 수입액

단위: 백만 달러(USD)

연도	밀	콩기름	우유	쌀	커피	비료제조
2010	547.1	402.3	592.2	1,652.50	117.9	270.4
2011	961.6	576.6	688.7	383.1	120.1	327.1
2012	975.9	689.3	644.3	438	251.1	385.7
2013	868.9	758.8	751.2	172.3	214.6	349.6
2014	1,030.40	971.1	763.3	453.7	246.4	352.7
2015	1,319.20	888.4	650.1	615.7	298.1	319.4
2016	1,229.80	1,053.90	641.3	278.8	483	317
2017	1,362.70	983.6	662.1	357.7	513.8	376.3
2018	1,811.00	1,252.40	933	869.5	652	413.1

자료: PSA(2015, 2019b)를 토대로 작성

농산물 주요 수입국으로는 미국, 태국, 중국, 호주 등이 있다. 필리핀 내 가장 많은 양을 수입하고 있는 밀은 미국과 우크라이나에서 각각 전체 밀 수입의 38.9%, 22%를 수입하고 있으며, 콩기름은 미국, 아르헨티나에서 각각 전체 콩기름 수입의 77%, 20.8%를 수입하고 있다.

〈표 2-22〉 주요 교역대상국별 수입액(2018년)

구분	수입국	수입량 (천 톤)	수입액 (백만 달러, \$)	비율 (%)
밀	미국	2,574.9	705.4	38.9
	우크라이나	1,730.2	399.8	22.0
	호주	1,515.9	371.6	20.5
	러시아	760.9	173.2	9.5
	캐나다	321.9	95.4	5.2
콩기름	미국	2,225.9	968.5	77.3
	아르헨티나	637.6	261.0	20.8
	브라질	44.4	19.9	1.5
	호주	3.2	1.5	0.1
	중국	0.3	0.3	0.03
쌀	태국	960.5	401.2	46.1
	베트남	819.6	354.6	40.7
	인도	91.4	53.3	6.1
	중국	62.3	32.5	3.7
	파키스탄	63.7	24.0	2.7
비료제조	중국	824.1	198.8	48.1
	캐나다	123.9	33.8	8.2
	베트남	82.2	28.3	6.8
	대한민국	62.6	22.0	5.3
	일본	137.3	20.0	4.8
옥수수	인도네시아	283.9	86.3	28.9
	태국	230.9	67.7	22.6
	미국	200.8	46.8	15.6
	베트남	91.5	32.7	10.9
	인도	88.6	25.0	8.4
우유	뉴질랜드	112.1	326.4	34.9
	미국	123.9	193.6	20.7
	말레이시아	79.6	67.5	7.2
	태국	41.8	45.8	4.9
	네덜란드	26.1	45.6	4.9

자료: PSA(2019b)를 토대로 작성.

2.5. 농업자재

필리핀 농업 비료는 2018년 기준 총 315만 톤이 공급되었으며, 전체 공급량의 24.8%가 필리핀에서 직접 생산되었고, 75.2%가 해외에서 수입되었다. 2010년 이후 비료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필리핀에서 직접 생산하는 비료 공급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비료 수입량은 감소하고 있다.

〈표 2-23〉 비료 공급량

단위: 천 톤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비료 총 공급량	2,153	2,150	1,609	1,208	2,710	2,479	2,659	3,831	3,150
비료 생산량	182.5	614.5	314	335.8	388.7	27.4	261.9	642.2	781.3
공급대비 생산율(%)	8.5	28.6	19.5	27.8	14.3	1.1	9.8	12.1	24.8
비료 총 수입량	1,970	1,535	1,295	872.9	2,321	2,451	2,397	3,369	2,368
공급대비 수입률(%)	91.5	71.4	80.5	72.2	85.7	98.9	90.2	87.9	75.2

자료: PSA(2015, 2019b)를 토대로 작성.

필리핀은 화학비료의 사용이 많으며 유기농 비료의 생산이 미미해 수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및 태국과 함께 동남아 국가 가운데 가장 큰 비료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비료(Nitrogen, Phosphorus, Potassium: NPK) 생산은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 현지 생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³⁴⁾

〈표 2-24〉 농기계 보유 현황

단위: 개수

농기계	1971	1980	1991	2002
쟁기(Plow)	1,980,001	2,578,906	3,087,671	2,723,850
씨레(Harrow)	1,398,508	1,828,496	2,251,698	1,643,325
분무기(Sprayers)	168,371	885,654	1,997,282	1,941,050
트랙터(Tractor)	106,610	341,012	804,688	1,526,557

자료: PSA 웹사이트 참조.³⁵⁾

34)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08764>, 검색일: 2020. 5. 15.).

필리핀의 농업기계화는 2% 내외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생산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필리핀 시장의 농기계 수입 규모는 약 3.5억 달러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농기계 시장은 도입기이며 보급률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기계 수입시장은 연 평균 40% 이상 성장하였다. 2016년 기준 필리핀 농기계 수입시장 규모는 3.65억 달러로 2012년 대비 3.8배 증가하였다. 트랙터, 곡물선별기, 탈곡기 등이 수입 농기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농업기계화 편차가 크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9: 13-14).

낮은 농업 기계화율은 필리핀의 낮은 농업 생산성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1990년 0.52마력/ha에서 2013년 기준 전체 작물은 1.23마력/ha, 벼와 옥수수는 2.31마력/ha로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여전히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상태로서 일본(7마력/ha), 남한(4.11마력/ha), 태국(4.2마력/ha), 중국(4.10마력/ha)보다 낮으며, 베트남(1.56마력/ha), 파키스탄(1.02마력/ha), 인도(1.00마력/ha) 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김승준 2017:14). 농업 기계화율이 낮은 원인으로는 농민의 구매력 부족, 농촌의 풍부한 잉여 노동력, 영농규모의 영세화, 농업기계의 높은 구매 및 유지비용, 농업기계화에 도움이 안 되는 정부 정책 등이 있다(Elmer G. Bautista, and others 2015: 49).

2018년 기준 필리핀 빈곤율은 16.6%, 최저생활 비율(Subsistence Incidence)은 5.2%로, 총 1,760만 명의 인구가 빈곤선 기준(월 소득 약 220달러) 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다. 2015년 기준 빈곤율 23.3%, 최저생활 비율 9.1%인 것과 비교하면 필리핀의 빈곤 관련 지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³⁵⁾ 필리핀 전체 빈곤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수도권 3.9%, 동비사야제도 38.7%,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 지역 53.7%로 지역별 빈곤율 편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국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NEDA)은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현금 지원, 연금, 인구 및 가족계획프로

35) PSA 웹사이트(<http://openstat.psa.gov.ph/>, 검색일: 2020. 5. 13.).

36) PSA 웹사이트(<https://psa.gov.ph/content/proportion-poor-filipinos-was-estimated-166-percent-2018>, 검색일: 2020. 9. 4.).

그램 등과 같은 사회프로그램을 통해 2022년까지 국가 빈곤율을 11%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방침이다.³⁷⁾

〈표 2-25〉 필리핀 지역별 빈곤율(%)

지역	2009	2012	2015
필리핀 전국	26.3	25.2	21.6
수도권	3.6	3.9	3.9
코르디에라 행정구	25.1	22.8	19.7
일로코스	22.0	18.5	13.1
카가얀 밸리	25.5	22.1	15.8
중부 루손	13.7	13.0	11.2
카라바르손	11.9	10.9	9.1
미마로파	34.5	31.0	24.4
비콜	44.2	41.1	36.0
서(西)비사야	30.8	29.1	22.4
중앙 비사야	31.0	30.2	27.6
동(東)비사야	42.6	45.2	38.7
삼보양가 반도	45.8	40.1	33.9
북(北)민다나오	40.1	39.5	36.6
다바오	31.4	30.7	20.0
소크사르젠	38.3	44.7	37.3
카라가	54.3	40.3	39.1
무슬림 민다나오 자치구	47.5	55.8	53.7

자료: PSA 웹사이트 참조.³⁸⁾

37) NEDA(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웹사이트(<https://www.neda.gov.ph/poverty-in-ph-expected-to-be-halved-by-2022-neda/>, 검색일: 2020. 9. 4.).

38) PSA 웹사이트(<http://openstat.psa.gov.ph>, 검색일: 2020. 4. 13.).

3. 국가 및 농업 정책 현황

3.1. ‘우리의 포부 2040(AmBisyon Natin 2040)’

필리핀의 국가전략은 2016년 10월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명, 발표한 『우리의 포부(AmBisyon Natin, 영어로는 Our Ambition) 2040』에 기초하여 수립되어 있다(NEDA 2016). 이 문서는 계획서(plan)라기보다는 204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장기적 비전(vision)을 담은 것으로, 24년 뒤인 2040년에는 “안정적(strongly rooted)이고 편안(comfortable)하고 안전한(secure) 삶(Matatag, Maginhawa at Panatag na Buhay)”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빈곤층이 없고 1인당 GNI가 현재의 3배로 늘어난 중산층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9가지 분야를 선정하였는데, 이는 주택 및 도시개발, 제조업, 교통, 교육 서비스, 관광 및 연관 서비스, 농업 개발, 농촌(countryside) 개발, 보건 및 복지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이다.

3.2. 필리핀개발계획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7-2022)

필리핀개발계획(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7~2022)은 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이다. 농업을 포함하여 분야별로 이전 계획시기였던 2011~2016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천명하였다(농업 분야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요약한 것은 김승준 2017: 106-113을 참조).

여기서는 경제성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2022년까지 상위중소득국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아울러, 2015년에 21.6%였던 빈곤율을 2022년 14.0%(농촌 지역은 같은 기간에 30%에서 20%)로 끌어내린다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600만 명에 달하는 필리핀 인구를 가난에서 탈출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GDP 실질성장률 7~8%를 달성함으로써 1인당 국민소

득이 2015년 3,550달러(구매력 기준)에서 5,000달러가 되도록 하겠다고 천명하였다(NEDA 2017: 11, 48).

PDP의 전반적인 전략은 “사회구조의 개선(Malasakit)”, “불평등 감축을 위한 변혁(Pagbabago)”, “성장 잠재력의 증대(Patuloy na Pag-unlad)” 등 세 가지 핵심 과제(pillars)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과제는 공공 제도 등에 대한 신뢰 회복, 둘째 과제는 분야별 경제발전, 셋째 과제는 과학기술 개발 등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과제 해결을 위해 다섯 가지 세부 전략이 제시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농림어업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FF) 분야에서의 경제적 기회의 확대”이다 (NEDA 2017: Chapter 8).

AFF 전략은 (A) 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경제적 기회의 확대, (B) 소농, 생계농 등 영세 농어민에 대한 경제적 기회에의 접근성 향상을 분야 목표(sector outcome)로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목표치는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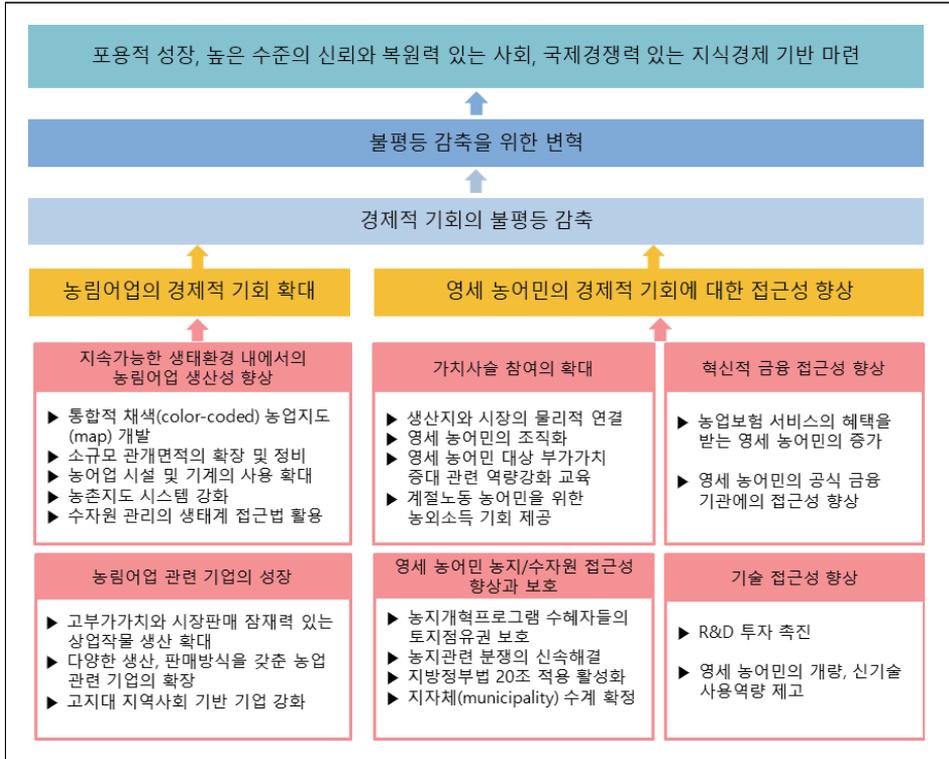
〈표 2-26〉 농림업 분야 경제적 기회의 확대를 위한 목표치

지 표	출발점		2022년 목표
	연도	현황	
성과목표 A : 경제적 기회의 확대(총 부가가치의 증대)			
작물	2015	-1.8%	2.0% - 3.0%
축산	2015	3.8%	3.0% - 4.0%
가금류	2015	5.7%	3.0% - 4.0%
임업	2015	-26.7%	2.0% - 3.0%
성과목표 B : 소농, 생계농의 경제적 기회에의 접근성 증대			
노동생산성 증대 (2000년 불변가격 기준)	2015	4.6%	5.0% - 6.0%

자료: NEDA(2017: 114)에서 발췌.

한편 성과별로 하위 성과목표(subsector outcome)를 설정하였는데, 이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2-3〉 농림수산 분야 성과목표



자료: NEDA(2017: 115)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3. ‘필리핀 농업(PA) 2020’

필리핀의 국립과학기술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이 제안한 ‘필리핀 농업(Philippine Agriculture 2020)’은 지난 30년간 필리핀 농업의 문제는 정책이나 인적 자원의 부족보다는 ① 정치적 의지 ②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노력 ③ 공공과 민간 간의 역할 조정 ④ 공공자금의 투명하고 책무성 있는 사용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다(NAST PHL 2020). 이에 따라 이 전략서는 농업이 농작물 생산 체계, 자연자원 체계, 그리고 사회 체계와 연계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빈곤 감축, 식량안보 달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속가능성 확보, 정의와 평

화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선언하였다.

PA 2020은 첫째, 농업을 비즈니스로 조직, 관리하고, 둘째, 농지 등 자산개혁을 통해 사회구조를 바꾸며, 셋째, 자연과 공동체를 존중하는 가치를 함양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하였다. 즉, 기술개발, 투자, 거버넌스 개혁이 그것이다.

〈표 2-27〉 ‘필리핀 농업 2020’ 추진을 위한 실행 전략

실행 전략	세부 내용
투자	농업 생산지와 시장 간 도로망 구축, 물류운송 및 정보전달 체계 구축, 수확 후 관리시설 개선, 농촌 관개배수시설, 농촌금융보험, 인적 역량개발 등
기술개발	생산성 증대, 품질 개선, 비용 감소, 환경 보존을 위한 기술 혁신, 수확 후 손실 감소, 농업 기계화, 수자원 관리 기술, 다품종 개발, 영농 다각화, 토질관리, 유기농업 개발
거버넌스 개선	공공기관 제도 강화,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 제도, 정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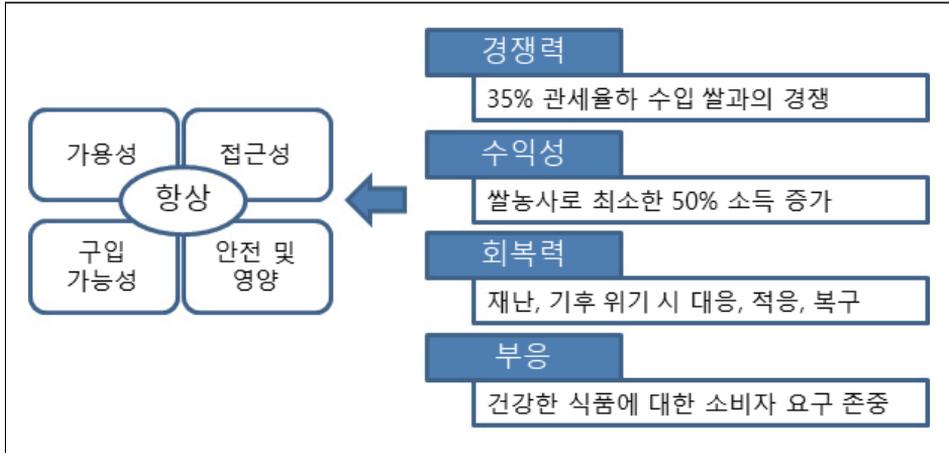
자료: NAST PHL(2020).

3.4. ‘필리핀 쌀산업 로드맵 2030(The Philippine Rice Industry Roadmap 2030)’

필리핀 농업부가 발표한 쌀산업 로드맵은 국가전략서인 ‘우리의 포부 2040’을 뒷받침하고자 2030년을 목표 연도로 하여 수립한 계획서이다(Department of Agriculture 2018). 특히 쌀 시장 개방이 이루어지고 인근 동남아 국가로부터 쌀 수입이 허용됨에 따라 필리핀 정부는 수입 쌀 대비 자국 내 쌀의 생산성 및 품질 개선을 통한 자급률 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필리핀 쌀 산업 로드맵 2030의 장기 비전과 미션은 경쟁력 강화, 수익성 제고, 회복력 확보, 소비자 요구 부응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주요 목표는 1) 경쟁력 향상 2) 재배 및 기후 위험에 대한 회복력 강화 3)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쌀에 대한 접근성 보장 등이다.

〈그림 2-4〉 쌀 산업 로드맵 2030의 비전과 미션



자료: Department of Agriculture(2018: 6).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쌀 생산성이 중간 이상인 중점 육성 지역(57개 주)을 선정해서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생산성을 ha당 5~6톤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생산비와 수확 후 손실, 판매 비용 등을 낮추도록 한다. 쌀 생산성이 낮은 지역은 다른 작물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이종(hybrid) 혹은 동종(in-bred) 교배 종자 지원, 기계화 등 비용 절약형 기술 보급, 건조 시설의 업그레이드, 그리고 교육 훈련 기간 중 소득 지원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농업부 예산 이외에도 관세로 확보된 재원으로 조성된 쌀경쟁력강화기금(Rice Competitiveness Enhancement Fund: RCEF)을 활용한다.

회복력 강화를 위해서는 작물보험, 기후 대응 기술의 보급, 조기 수확 종자 보급 등이 제시되었다.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쌀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최소 15 일간을 보장하는 비상용 쌀 저장, 부가가치가 높은 쌀 확보, 손실 저감 등이 제시되었다.

제3장

농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수요

농업분야 개발협력 현황 및 수요

1. 우리나라의 對 필리핀 개발협력 현황

1.1. ODA 지원 현황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ODA 중점 협력국가로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지난 5년간 총 5억 3,310만 달러(약정액 기준)의 ODA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는 3,090만 달러로 ODA 총액의 5.8%를 차지하였다. 지난 5년간의 추세를 살펴보면, 2016년까지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2017년 다시 회복세를 보이며 큰 상승세를 나타냈다.

〈표 3-1〉 우리나라의 對 필리핀 ODA 지원(약정액 기준)

단위: 백만 달러(USD)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ODA 총액	140.8	37.5	142.3	19.2	193.4	533.1
농업 및 농촌개발 부문 총액	7.5	6.6	10.6	2.2	4.0	30.9
비율(%)	5.3	17.5	7.4	11.7	2.1	5.8

자료: 공적개발원조(ODA) 통합보고 시스템을 토대로 저자 작성.³⁹⁾

아래 <표 3-2>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필리핀에 총 1억 9,336만 달러의 ODA를 지원하였다. 이 중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 404만 달러가 제공되었으며 전체 ODA 지원액 중 2.09%를 차지하였다. 농업개발 분야가 전체 ODA의 1.6%, 농업 및 농촌개발의 76.5%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비정규 농업 훈련과 농업 관련 교육/훈련이 그 뒤를 이었다.

<표 3-2> 필리핀에 대한 우리나라의 농업 및 농촌개발 ODA 현황

단위: 백만 달러(USD)

연도		2017	
분야		금액	비율 (%)
농업	31110: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	-
	31120:농업개발	3.09	1.60
	31140:농업용수자원	0.01	0.00
	31150:농업관련 기자재	-	-
	31161:식량생산	-	-
	31162:경제작물/수출작물	-	-
	31163:축산	0.17	0.09
	31166:비정규농업훈련	0.33	0.17
	31181:농업관련교육/훈련	0.29	0.15
	31191:농업관련서비스	0.06	0.03
	31192:병충해구제	-	-
	31194:농업협동조합	-	-
	31195:축산진료	-	-
임업	31210:임업정책 및 행정관리	-	-
	31220:임업 개발	-	-
	31281:임업 교육 및 훈련	-	-
다분야	43040:농촌개발	0.08	0.04
합 계		4.04	2.09
ODA 총액		193.36	100.00

주: ODA 총액은 약정액 기준.

자료: 공적개발원조(ODA) 통합보고 시스템을 토대로 저자 작성.⁴⁰⁾

39) 공적개발원조(ODA) 통합보고 시스템(<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검색일: 2020. 4. 2.).

40) 공적개발원조(ODA) 통합보고 시스템(<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검색일: 2020. 4. 2.).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2014년부터 2018년)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 총 66개의 ODA 사업에 지원하였다(<표3-3 참조>). 시행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총 5개 기관이며, 각 42개, 17개, 5개, 1개, 1개 사업을 지원하였다.

사업 분야는 농업개발과 농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이 각 17개로 가장 많았다. KOICA는 농업 정책 및 행정관리, 농업개발, 축산, 훈련, 농촌개발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로 농업 관련 교육 및 훈련을 진행하였고, 농촌진흥청은 농업개발 사업을 지원하였다. 농업개발 분야의 세부 사업으로 농촌개발사업과 역량강화사업 및 특별연수 등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농업 관련 교육 및 훈련 분야로는 농정성과 확산 사업, 식물검역 및 종자 산업, 봉사단 파견, 수확 후 품질 관리, 친환경 사업이 지원되었다.

KOICA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농기계 현대화센터 구축 및 생산역량 강화 사업('20-'23, 579만 달러), 민다나오 지속 가능 개발 농촌 비즈니스 지원 사업('19-'21, 600만 달러), 퀴리노 농촌종합개발 2차 사업('18-'22, 950만 달러)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 영농 소득 증대, 가치사슬 기반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⁴¹⁾

농촌진흥청은 AFACI(Asian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 토양, 채소 품종개발, 이동성 병해충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⁴²⁾ KOPIA(Korea Program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Tehnology) 필리핀 센터는 벼와 채소를 대상으로 농가 실증 및 시범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성과로는 벼 우량종자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통한 벼 생산성 향상(3.8톤/ha → 4.5톤/ha)과 소득 창출(900달러/ha)이 있다.⁴³⁾

41) KOICA 필리핀사무소 웹사이트(http://koica.go.kr/phl_kr/7421/subview.do, 검색일: 2020. 5. 20.).

42) AFACI 웹사이트(<http://afaci.org/>, 검색일: 2020. 5. 20.).

43) KOPIA 필리핀센터 웹사이트(<http://itcc.rda.go.kr/kopia/portal/kopiaBiz/kopiaBizPresent.do?menuNo=1&languageGb=01>, 검색일: 2020. 5. 20.).

〈표 3-3〉 필리핀에 대한 우리나라의 농업 및 농촌개발 ODA 지원 사업내역(2014~2018년)

분야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 실시기관	사업 지원기관	
농업	31110: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2015.01.01.~2015.12.31.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 사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31110: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2016.01.01.~2016.12.31.	봉사단피견-NGO 봉사단-필리핀	공여국 내 NGO	한국국제협력단
	31110: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2016.08.09.~2017.12.22.	식사학위-농축산 가공/마케팅(16-17)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1110: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2018.01.01.~2019.02.28.	아세인3 식량안정보정시스템 2단계협력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농림축산식품부
	31110: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2018.12.17.~2021.12.31.	필리핀 산호세델라시 시장기반 친환경농업사업을 통한 주민소득증대	공여국 내 NGO	한국국제협력단
	31120:농업개발	2013.12.31.~2014.12.30.	혼농임업 도입을 통한 소득증대, 산림복원 및 기후변화 적응사업	NGO	한국국제협력단
	31120:농업개발	2014.10.01.~2014.10.31.	ASEAN 특별연수 2- 차세대 방승 콘텐츠 제작 교류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1120:농업개발	2014.11.06.~2014.11.19.	ASEAN 특별연수 1- 포괄적 환경 모니터링 연수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1120:농업개발	2015.01.01.~2017.12.31.	필리핀 파나이섬 고지대 새마을 농촌종합개발사업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1120:농업개발	2015.12.30.~2020.06.01.	필리핀 MIC사업지구 농촌개발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31120:농업개발	2016.01.01.~2016.12.31.	필리핀 혼농임업을 통한 친환경적 작물 다양화 및 소득증대	NGO	한국국제협력단
	31120:농업개발	2016.01.01.~2016.12.31.	필리핀 새마을운동 연계 KOPIA 시범마을 조성	해외농업기술개발 (KOPIA) 필리핀센터	농촌진흥청
	31120:농업개발	2016.01.01.~2016.12.31.	해외 농촌진흥청 연수생 연합체 시범사업	해외 농촌진흥청 연수생 연합체	농촌진흥청
	31120:농업개발	2016.01.01.~2017.12.31.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농촌진흥청
	31120:농업개발	2016.01.01.~2016.12.31.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운영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농촌진흥청
	31120:농업개발	2016.05.01.~2021.05.01.	필리핀 농촌개발사업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31120:농업개발	2016.06.05.~2016.06.18.	농촌개발분야 역량강화전략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계속)

분야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 실시기관	사업 지원기관
31120:농업개발	2016.08.16.~2016.08.16.	석사학위-지역공동체 개발 개도국 지도자 및 교수요원 양성과정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1120:농업개발	2017.01.01.~2017.12.31.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운영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농촌진흥청
31120:농업개발	2017.04.02.~2017.08.25.	농촌개발분야 역량강화전략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1120:농업개발	2017.12.15.~2021.12.14.	필리핀 시설팜 구축을 통한 토마토 생산 최적화 및 고품질화 지원 사업	공공-민간 파트너십	한국국제협력단
31120:농업개발	2018.01.01.~2020.01.31.	석사학위-농업공학 역량강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1120:농업개발	2018.05.07.~2018.06.03.	농촌개발분야 역량강화전략(2016-2018), 3차년도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1140:농업우수자원	2017.09.07.~2017.09.28.	기후변화 대응 농업우수 개발 및 관리 전문가 양성(아시아)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1161:식량생산	2016.01.01.~2016.12.31.	봉사단파견 NGO봉사단 필리핀	공여국내 NGO	한국국제협력단
31162:경제직물/수출직물	2014.08.17.~2014.08.30.	필리핀 수확후관리(과일 및 채소) 역량강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1162:경제직물/수출직물	2015.01.01.~2019.12.31.	필리핀 APEC 적정기술 보급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1163:축산	2014.09.21.~2014.10.04.	필리핀 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체계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1163:축산	2015.10.19.~2017.10.30.	축산물품질평가 향상 특화 연구	축산물품질평가원	농림축산식품부
31163:축산	2016.01.01.~2016.12.31.	봉사단파견 해외봉사단 필리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1163:축산	2017.01.01.~2017.12.31.	필리핀에 축산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1163:축산	2017.01.01.~2017.12.31.	필리핀에 축산 관련 NGO봉사단 파견	공여국내 NGO	한국국제협력단
31163:축산	2018.01.01.~2018.12.31.	필리핀에 축산, 기축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1163:축산	2018.11.22.~2019.11.30.	(18/19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 Ⅲ)필리핀 축산물 품질관리를 위한 축산업 ICT 시스템 구축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31166:비정규 농업훈련	2016.01.01.~2016.12.31.	봉사단파견 해외봉사단 필리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1166:비정규 농업훈련	2017.01.01.~2017.12.31.	필리핀에 비정규 농업훈련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1166:비정규 농업훈련	2018.01.01.~2018.12.31.	필리핀에 농업 지도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계속)

분야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 실시기관	사업 지원기관
31181:농업관련 교육/훈련	2015.10.12.~2015.10.16.	식물검역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아시아지역 워크숍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31181:농업관련 교육/훈련	2015.11.01.~2015.11.14.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농림축산식품부
31181:농업관련 교육/훈련	2015.11.09.~2015.11.13.	개도국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 연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31181:농업관련 교육/훈련	2016.01.01.~2016.12.31.	봉사단파견 NGO봉사단 필리핀	공여국내 NGO	한국국제협력단
31181:농업관련 교육/훈련	2016.05.01.~2016.11.01.	식물검역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아시아지역 워크숍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31181:농업관련 교육/훈련	2016.05.01.~2016.11.01.	개도국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 연수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31181:농업관련 교육/훈련	2016.05.29.~2016.06.04.	아시아 개도국 안전성관련 관계관 초청연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31181:농업관련 교육/훈련	2016.07.31.~2016.08.13.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농림축산식품부
31181:농업관련 교육/훈련	2016.10.16.~2016.10.29.	필리핀 농산물 수확후 품질관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1181:농업관련 교육/훈련	2017.01.01.~2017.12.31.	필리핀에 농업관련 교육/훈련 관련 NGO봉사단 파견	공여국내 NGO	한국국제협력단
31181:농업관련 교육/훈련	2017.04.01.~2017.11.30.	식물검역 국제기준 마련을 위한 아시아지역 워크숍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31181:농업관련 교육/훈련	2017.04.01.~2017.11.30.	개도국 식물검역 전문가 초청 연수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31181:농업관련 교육/훈련	2017.05.15.~2017.06.04.	(전남) 친환경 농업기술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1181:농업관련 교육/훈련	2018.02.06.~2018.08.31.	아시아 개도국 농산물 안전성 관련 관계관 초청연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31181:농업관련 교육/훈련	2018.04.16.~2018.05.10.	(전남) 친환경 농업기술(16~18), 3차년도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1181:농업관련 교육/훈련	2018.07.01.~2018.12.31.	개도국 식물검역 전문가 역량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식품부
31181:농업관련 교육/훈련	2018.10.14.~2018.10.27.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국립종자원	농림축산식품부
31182:농업 연구	2013.12.31.~2014.12.30.	필리핀 북부 민다나오 루나 마을 미생물/유기질 비료 및 버섯재배 기술전수 사업	Other	한국국제협력단

(계속)

분야	사업기간	사업명	사업 실시기관	사업 지원기관
31182:농업 연구	2014.06.23.~2014.07.13.	품종보호제도 및 심사기술(아시아, 아프리카)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31191:농업관련 서비스	2017.01.01.~2017.12.31.	필리핀에 농업관련 서비스 관련 NGO봉사단 파견	공여국 내 NGO	한국국제협력단
31191:농업관련 서비스	2018.01.01.~2022.12.31.	아태지역 농업 및 가치사슬 발전 사업	아시아개발은행	농림축산식품부
임업	31220:임업 개발	필리핀 목재펠릿가공 및 지속적인 상업조림지 조성사업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다분야	43040:농촌개발	필리핀 파나이섬 친환경 농촌종합개발사업	우리나라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	한국국제협력단
	43040:농촌개발	봉사단파견 해외봉사단 필리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43040:농촌개발	필리핀에 농촌개발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43040:농촌개발	필리핀 쿠리노주 농촌종합개발 2차 사업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43040:농촌개발	필리핀에 농촌 개발 관련 해외봉사단 파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43040:농촌개발	(강원도)새마을운동을 통한 지역 활성화 역량배양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43040:농촌개발	석사학위-지역개발 역량강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협력단

자료: 공적개발원조(ODA) 통합보고 시스템을 토대로 저자 작성.⁴⁴⁾

44) 공적개발원조(ODA) 통합보고 시스템(<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검색일: 2020. 4. 2.).

우리나라의 필리핀 국가협력전략 중 농업 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분을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2. 우리나라의 국가협력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

필리핀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2차 국가협력전략은 당초 2016년에 수립되었으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수정된 전략서가 발표되었다. 이 수정 전략서는 기존 제2차 전략서의 종료 연도인 2020년까지 적용됨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나 2020년 혹은 2021년에 수립될 제3차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 결과를 반영하여 필리핀이 제3기 중점 협력국에 계속 포함되는 경우 수정 전략서가 2020년 이후까지 적용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관계부처 합동 2020).

필리핀 CPS는 지역개발과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통, 재해예방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점 협력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지역개발 분야의 지원 목표는 “소외지역 빈곤층 빈곤 감소를 위한 지역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이다. 기본방향은 (i)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ii) 농업 가치사슬 강화 및 농업유통체계 역량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가 (iii) 농업생산 증대 및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개발 등 세 가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은 네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관계부처 합동 2020: 170-172, 181).

〈표 3-4〉 우리나라의 필리핀에 국가협력전략 중 '지역개발' 분야의 세부 내용

구분	내용	
목표	소외지역 빈곤층 빈곤 감소를 위한 지역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기본방향	(i)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ii) 농업 가치사슬 강화 및 농업유통체계 역량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가 (iii) 농업생산 증대 및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실행 계획	주민참여형 지역개발	지역주민 주도형 농촌개발, 농민 협동조합 활성화 유관 기관 연계를 통한 농촌개발, 지역단위 농업개발
	농업용 수자원 및 농업기반시설	농업기반시설 구축 및 농수로 및 토지 정비
		농기계 설계·제작 보급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소득증대
		ICT 기술 활용을 통해 스마트팜 성공사례 도출과 확산
	농업 가치사슬 창출	수확 후 가공시설 지원 등 농업 가치사슬 형성을 위한 소득증대
		농산물 유통정책 수립 지원, 가공·유통시스템 개선 등
수출목표 농산물 대상 품질 관리 검역체계 구축		
소농 금융 접근성 개선, 시장 접근성 개선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국내외 NGO와의 연계로 사업 발굴 확대 및 이행방식 다양화	
농업기술 개발 보급	농업기술 개발 보급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0: 171-172).

수정된 전략서는 농업·농촌개발 분야에서 다양한 세부 분야를 언급하고 있어서 초점이 잘 맞추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 농업기반시설 개선과 농기계·농업기술 보급 등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 가공·유통·수출 등 농산물 가치사슬의 생산 이후 단계로부터의 가치 창출, 주민조직 등을 통한 지역단위 참여형 농촌개발 등이 핵심 지원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스마트팜과 같은 ICT 기반 농업, 소액금융 등 농업 서비스 제공, 유관기관·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등과의 연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필리핀개발계획(PDP)이 농림어업의 소득 기회를 확대하고 영세 농어민의 경제적 기회에의 접근성 향상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 감축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가협력전략이 지역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과제의 방향은 타당하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더 적은 수의 핵심 지원 분야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국제사회의 對 필리핀 개발협력 현황

2.1. 개발협력 규모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4년간 필리핀의 농업, 농촌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ODA 총액은 감소하다가 2018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필리핀의 ODA 총액은 2018년 기준 10억 2,602만 달러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1억 121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농업 분야 총액은 2억 1,308만 달러로 전체 ODA 지원 금액의 4.1%를 차지하였고, 임업 분야는 총 2,315만 달러로 0.4%, 농촌개발은 총 5,970만 달러로 1.1%를 차지하며 농림수산 및 농촌개발 분야가 전체 ODA 지원 금액의 6% 비중을 나타냈다.⁴⁵⁾

농업 분야 중 농업용수 부문이 총 4,448만 달러(20.8%)로 전체 농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농업금융서비스(4,150만 달러, 19.4%)와 농업개발(3,885만 달러, 18.2%) 분야가 뒤를 이었다.

〈표 3-5〉 농림수산 분야별 원조 지원 현황(2013~2018년)

단위: 백만 달러(USD), 총지출 기준

부문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ODA 총액	1,337.92	1,144.35	869.11	723.80	1,026.02	5,101.21
300: 생산 총액	72.92	60.80	48.91	41.51	88.72	312.88
310: 농림수산 총액	58.58	43.18	38.29	26.92	79.63	246.62
311: 농업 총액	54.83	39.05	33.05	20.57	65.56	213.08
31110: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	2.50	2.07	1.90	1.30	1.81	9.59
31120: 농업개발	6.24	7.58	7.75	6.97	10.29	38.85
31130: 농업용지	0.91	0.99	0.99	1.3	-	4.03
31140: 농업용수	5.74	6.61	4.74	6.31	21.07	44.48
31150: 농업투입요소	4.64	3.26	0.21	0.15	0.05	8.32
31161: 식량작물생산	0.67	0.42	0.52	0.23	0.30	2.17

45) OECD STAT 웹사이트(<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0. 5. 18.).

(계속)

부문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31162: 경제작물/수출작물	0.05	0.32	0.09	-	-	0.47
31163: 축산	0.37	0.44	0.22	0.26	0.10	1.42
31164: 농지개혁	15.05	9.99	3.10	0.45	0.57	29.19
31165: 농업대체작물	0.26	0.04	0.04	0.06	-	0.41
31166: 농업기술훈련(농촌지도)	0.26	0.31	0.41	0.32	0.25	1.53
31181: 농업관련교육/훈련	1.96	1.18	2.62	0.77	0.16	6.72
31182: 농업연구	3.97	2.04	2.71	0.88	5.66	15.28
31191: 농업관련서비스	1.46	0.17	0.18	0.06	0.27	2.16
31192: 병충해구제	-	-	-	-	-	-
31193: 농업금융서비스	8.37	2.40	6.52	0.51	23.67	41.50
31194: 농업협동조합	1.36	1.00	0.91	1.04	1.21	5.54
31195: 축산진료	0.98	0.15	0.06	0.05	0.09	1.35
312: 임업	3.11	2.60	2.79	4.37	10.26	23.15
31210: 임업정책 및 행정관리	1.68	1.57	2.51	3.96	10.26	19.99
31220: 임업개발	1.41	1.01	0.13	0.41	-	2.97
31261: 연료재 및 숯 생산	-	-	-	-	-	-
31281: 임업교육훈련	0.01	0.01	-	-	-	0.03
31282: 임업연구	-	-	0.15	-	-	0.15
31291: 임업서비스	-	-	-	-	-	-
43040: 농촌개발	14.70	4.45	5.95	17.90	16.68	59.70

자료: OECD STAT 웹사이트를 토대로 저자 작성.⁴⁶⁾

2.2.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전략

미국, ADB, IFAD, OECD 등 국제사회의 필리핀에 대한 협력전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2.1. USAID의 필리핀 국가개발협력전략(2020-2024)

미국 국제개발처가 수립한 필리핀 국가개발협력전략(Country Development

46) OECD STAT 웹사이트(<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0. 4. 3.~2020. 5. 18.).

Cooperation Strategy: CDCS)은 전체적인 목표(goal)와 개발목표(development objective), 중간성과(intermediate result)의 틀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 목표는 “거버넌스가 잘 수립되어 있고 보다 자립적인 인도양, 태평양 지역의 파트너”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정부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동맹국으로서의 필리핀을 아시아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로 설정하고 있다(USAID 2019: 4). 특히 중국이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발협력의 지렛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발목표는 (i) 민주적 거버넌스의 강화 (ii) 포용적이고 시장에 기반한 성장의 확대 (iii) 환경과 지역사회의 회복력 향상 등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이들 목표와 관련된 중간 성과와 그 세부 성과는 다음 표와 같다(USAID 2019: 3).

〈표 3-6〉 USAID의 필리핀 국가개발협력전략

개발목표	중간성과
민주적 거버넌스의 강화	민간의 참여 증가
	공공의 투명성과 책무성 개선
	법치 제도의 진전
	호응도가 개선된 지방 정부의 거버넌스
포용적이고 시장에 기반한 성장의 확대	규제의 질적 개선
	자립에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정부 역량의 증대
	인적자본 개발의 개선
	민간부문 주도의 성장 촉진
환경과 지역사회의 회복력의 향상	선진 에너지 부문과 시장의 확대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강화
	초국경 위험에 대한 대응 강화
	위험 경감 및 재해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자료: USAID(2019: 3)에서 정리.

미국의 필리핀 CDCS의 방향은 정치·정책적 거버넌스 개선과 시장기반 성장 및 발전, 환경보호와 재난 대응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개발목표는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경제적 투자와 협력 확대가 시장을 왜곡하고 이를 규제하는 제도, 기능을 약화시키며, 필리핀 기업과 국민을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USAID 2019: 21). 아울러 CDCS가 부문별 세부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농업, 농촌개발 등에 관한 개발 협력의 방향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2.2. ADB의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2018-2023)

ADB가 수립한 필리핀 협력전략의 핵심어는 “높고 포용적인 성장(high and inclusive growth)”이다. 이를 달성하도록 정책의 개혁, 제도적 역량 개발, 재정투자 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ADB가 설정한 세 가지 핵심전략(pillar)은 (i) 인프라와 장기투자의 가속화 (ii) 지방의 경제발전 촉진 (iii) 사람에의 투자 등이다. 이 핵심 전략들을 뒷받침하고자 여러 가지 우선 지원 분야들을 선정하고 있다(ADB 2018: 1). 다음 표는 핵심전략별 우선 지원 분야, 그리고 지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단기 성과들을 요약한 것이다.

ADB의 협력전략은 필리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인프라 개발 정책인 “건설·건설·건설(Build, Build, Build)”이라고 하는 BBB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쪽으로 금융 지원의 방향을 설정하고, 장기적 인프라와 사회적 투자, 재난 위험 관리 등을 촉진하고자 한다(ADB 2018: 1).

〈표 3-7〉 ADB 국가협력전략의 성과 프레임워크

CPS 목표 및 장기적 성과	CPS 세부 우선 지원분야	ADB가 지향하는 핵심 단기 성과
(i) 인프라와 장기투자의 가속화	인프라 정책과 금융 지원	경제적 기회에의 접근성 증대
	제도적 역량 개발	공공 인프라에의 지출 증대
	인프라 건설을 위한 투자	전략적 인프라 개발 국내 및 해외투자의 증대
(ii) 지방의 경제발전 촉진	지방정부 개혁	문화와 성평등을 고려한 거버넌스 정책 수립 및 집행
	지방정부 역량 개발	무결점 서비스 전달체계 달성 행정능력 제고
	도시화와 지역 간 연결	농촌과 성장거점의 효과적 통합 촉진
	재난 위험 관리와 금융지원의 지역화	지역차원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및 재난 위험 경감조치의 강화

(계속)

CPS 목표 및 장기적 성과	CPS 세부 우선 지원분야	ADB가 지향하는 핵심 단기 성과
(iii) 사람에의 투자	인적 자원 개발	모두를 위한 기초교육의 품질, 접근성, 적절성, 개방화 달성
		소득 활동 능력 증대
		인구학적 천이(demographic transition)의 가속화, 인구배당효과(demographic dividend)의 극대화
	포용적 금융	포용적 금융 정책의 효과성 강화
		소규모 농어가의 경제적 기회에의 접근성 증대
	사회적 보호	사회적 보호의 확대
사회적 혁신	혁신으로의 박차 증대	

자료: ADB(2018: 16-17)에서 발췌.

2.2.3. IFAD의 필리핀 국가전략기회프로그램(COSOP: Country Strategic Opportunities Programme, 2017~2022)

IFAD는 필리핀 농업이 안고 있는 정책 어젠다를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쌀 자급에 많은 정책적 자원이 집중하면서 소득작물로의 농업의 다각화에는 제약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농지개혁을 통해 농촌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농지 시장이 잘 작동하지 않아 기업형 소농 등의 농지 확장이 어렵다. 셋째, 각종 공공 인프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고 민간 부문의 농식품 가치사슬 분야에의 투자가 촉진되어야 한다(IFAD 2017: 2).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IFAD의 전략은 필리핀 정부가 수립한 PDP 내용 중 농업과 관련한 목표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에서 수립되었다. 전략목표(strategic objective)는 “경쟁력 있고 포용적이며 회복력 있는 농식품 가치사슬 수립을 지원하는 환경과 전달체계(delivery systems)를 구축”하는 것이다(IFAD 2017: iv). 특별히 IFAD의 COSOP은 지리적으로 동부 비사야, 민다나오, 북부 루손 고원지방 등 대상 지역을 특정하여 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중점 지원 대상 집단도 소규모 농촌 생산자와 기업, 농지개혁 수혜자, 취약한 토착 주민들, 그리고 소규모 어가 등으로 설정하였다.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은 첫째, 제도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경쟁력(competitiveness) 강화, 둘째, 농촌 생산자와 기업의 가치사슬 개발 지원으로 소득을 제고함으로써 격차를 줄이는 포용성(inclusion) 확대, 셋째, 환경, 생태 친화적 농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등 회복력(resilience) 확보 등이다.

2.2.4. OECD의 필리핀 농업정책에 대한 제언

OECD는 필리핀의 농업 현황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를 거쳐 주요 과제를 도출하고, 필리핀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정책 제언들을 제시하였다(OECD 2017).

OECD가 제시한 필리핀 농업이 처한 주요 과제들은 여섯 가지이다. 첫째, 생산성이 권역 내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 농업 부문 노동생산성은 공업의 6분의 1에 불과하며, 토지생산성은 좋은 편이나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보다 낮다. 이에 따라 총 요소 생산성(TFP)도 취약한 편이다.

둘째, 농식품 분야의 국제시장과의 연계성이 취약하다. 2012~2014년도 기간에 농업 GDP 대비 농식품 수출은 19%, 수입은 25%에 불과하다.

셋째, 농지개혁의 경제적 성과가 미흡하다. 2015년 말 현재 전체 재분배 대상 농지의 92%가 재분배되었으나 재산권 분쟁, 전 소유자와 농지개혁 수혜자 간의 분쟁 등이 빈발하고 있다.

넷째, 농장 구조가 더욱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농지개혁의 결과 농장 수가 늘면서 농장의 규모는 크게 줄었다. 1980년에 평균 농장 규모가 2.8ha였는데 2012년에는 1.3ha여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어렵다.

다섯째, 자연자원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장기적인 생산 확대가 어렵다. 인구가 늘고 도시화, 농업생산 확대에 따라 자연자원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여섯째, 극심한 기후 관련 재난으로 농업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해마다 태풍과 가뭄, 홍수로 인한 피해가 연간 농업생산의 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OECD 2017: 29-33).

이와 같은 진단을 통해 OECD가 제시한 정책 제언들은 다음과 같다.

〈표 3-8〉 OECD의 필리핀 농업정책에 대한 제언

1. 농업 부문의 장기적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정 성과의 개선
1-1. 식량안보 개선을 위해 정책 패키지가 초점을 두어야 할 곳을 변경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작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거함으로써 생산, 소비, 소득을 다각화 • 쌀 수입에 대한 제약요인들을 점진적으로 제거 • 국가식량체(NFA)의 쌀 구입 보조금 지급을 철폐하고 그 대신 조건부 현금, 식량 바우처를 지급 • NFA의 역할을 비상식 비축물량을 관리하는 시장중립적 기관으로 조정
1-2. 농지정책을 농지 재분배로부터 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변경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소유권에 대한 확신을 부여 • 농지개혁을 시행한 뒤에는 농장경영을 위하여 농지의 집적화 추진 • 농장 구조조정을 위한 장기 전략 수립
1-3. 장기적 구조개혁을 위한 예산지원에 초점을 둘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입재에 대한 보조금보다는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에 예산 재배정 • 공급체인 연계성을 개선 • 특정 작물에 국한된 예산배정은 철폐
1-4. 농업 정보 시스템의 방향 재설정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기술 연구개발, 교육과 기술보급 서비스의 제도적 장치를 개선: 제도적 혼란을 줄이고 수직적, 수평적 협력을 강화하며, 쌀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지출을 늘릴 것 • 농업교육과 기술보급 서비스의 초점을 농장경영 역량 개선에 맞추도록 재설정
2. 현행 위험관리 수단과 대안 조치들의 효과성을 평가해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위험에 정책 초점을 맞추는 식으로 위험관리에 대한 총괄적 접근방식 채택 • 적응 조치를 채택할 수 있도록 보험, 현금 지급 방식을 평가
3. 농업 부문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역량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프로그램과 제도들이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함 • 기후변화 적응 조치를 위한 명확한 지침 개발 • 새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기후변화를 고려한 것인지 확인 • 믿을 만한 기후 정보를 농민에게 제공 • 수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
4. 농업 제도와 거버넌스 체계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수행하는 타 유관 부처, 조직과 농업부(DA) 간의 제도적 조정을 강화 • 공적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 • 정책에 적합한 견고한 통계체계 수립 노력의 가속화 • 점검과 평가(M&E) 절차를 정책집행 과정에 포함할 것

자료: OECD(2017: 18-19).

OECD의 정책 제언을 요약하면 쌀 등 특정 작물への 집중적 지원과 각종 직접 보조를 줄이고, 농지 소유권 확립과 농장 확대 등을 포함한 농업 부문의 구조 조정,

재구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연재해가 빈발하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절한 적응 조치(adaptive decision)를 도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3. 필리핀의 개발협력 수요

3.1. 개발협력 추진 체계

필리핀 국제개발협력은 국가경제개발청(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NEDA)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DOF), 예산관리부(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DBM)와 함께 ODA 사업 조정과 운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재무부는 주로 유상원조의 협상과 운영을 담당하고, 예산관리부는 차관 인출과 차관 계약에 명시된 기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 세출을 담당한다(관계부처 합동 2020: 161). 필리핀은 개발 협력에 대한 수원 체계를 잘 갖추고 있으며, 국가경제개발청 내 부서별 담당 기관이 세분화되어 있다.

공여국, 국제기구 및 관련 이해 관계자들은 필리핀 개발포럼(Philippines Development Forum)을 통해 필리핀의 개발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의 합의를 도출한다. 필리핀 개발포럼은 필리핀 정부와 세계은행이 의장을 맡고 있으며, 좀 더 폭넓은 협의체로 발전하여 분야별 이슈를 점검하고 지식을 공유하도록 한다(관계부처 합동 2016: 11).

3.2. 필리핀 쌀 농업기술 도입 이해관계자 분석

3.2.1. 서론 및 연구방법

필리핀에서는 현재 필리핀 쌀 연구소(PhilRice)와 필리핀 농업기계화연구소(PhilMech), 국제미작연구소(IRRI) 등을 통해 쌀 생산을 위한 혁신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 쌀과 관련한 기술은 종자 기반 기술(Seed-based technologies), 문제 중심의 통합관리기술(Problem-focused, integrated management technologies), 전체적 통합관리기술(Holistic, integrated management technologies)로 나뉘어 개발, 보급되고 있다.

연구를 위해 PhilRice 직원, 루손, 비사야, 민다나오 지역의 농민 리더와 농업기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PhilRice 관련 부서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필리핀의 일부 대표적인 기술 및 관리 관행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술 도입 추세를 나타내지는 못하였고 일부 업데이트되지 못한 과거 데이터를 사용한 한계도 있다.

3.2.2. 연구 결과

가. 쌀 생산 현황

2019년 기준 쌀 총 재배면적은 460만 ha, 쌀 총 생산량은 18만 8,000톤(1~6월 8만 톤, 7~12월 10만 톤)이다. 지난 5년간(2014~2018년) 평균 쌀 자급률은 91.1%이다. 쌀 생산성은 연간 9.52 톤/ha이며, 관개답은 평균 4.4 톤/ha, 천수답은 평균 3.13 톤/ha이다.

나. 법률 및 정책

필리핀이 쌀 수입을 자유화하면서 관련법(The Philippine Rice Liberalization Law. RA. No. 11203)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쌀경쟁력강화기금(Rice Competitiveness

Enhancement Fund: RCEF)이 조성되었다. PhilRice는 이 기금 중 종자 프로그램을 통해 종자생산업체로부터 근친교배 보급 종자를 조달받아 농민에게 무료로 배포한다. 아울러 농업부 농업훈련기관, 기술교육 및 기술개발기관과 함께 기술 보급도 담당한다. PhilMech는 이 기금이 배정한 연 50억 PHP의 예산으로 농기계 확보 및 공급을 담당한다.

필리핀 쌀 산업 로드맵 2030(The Philippine Rice Industry Roadmap 2030)은 3대 주요 목표로 1) 경쟁력 향상 2) 재배 및 기후 위험에 대한 탄력성 강화 3)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쌀에 대한 접근성 보장 등을 설정하였다.

그 밖에 필리핀 농업부는 국가 쌀 프로그램(National Rice Program: NRP)의 계획과 목표에 따라 지역 현장 사무소와의 협의, 정책 및 규제 검토와 승인 등을 담당한다.

다. 도입 가능한 기술 및 도입 수준

1) 종자 기반 기술(Seed-based Technologies)

필리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근친교배 품종은 PSB Rc18, NSIC Rc222, PSB Rc82 품종이다. 교잡 벼 품종은 Manipal3, NSIC Rc132이다. 오늘날 현대화된 다수확 품종의 도입이 계속 늘고 있다.

2) 문제 중심의 통합관리기술

(Problem-focused, Integrated Management Technologies)

가) 토지 고르기(Land preparation)

전체 생산을 위한 노동일의 15~16%인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 기간에 쓰이는 사륜 트랙터(15~60마력)와 핸드 트랙터(10~15마력)는 초기에 일본에서 수입했다. 수명이 짧고 무거우며 가파른 지역에서는 운반이 어렵다. PhilRice는 분해가 가능한 소형 경운기를 개발하였다. 진흙 지역에서는 Laboy 경운기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Laboy 경운기로는 땅 고르기를 할 수 없기 때문

에 물소를 사용하여 땅을 평평하게 해야 했다. SuperCuryat 마이크로 경운기는 PhilRice에서 가파른 지형을 위해 설계되었다.

농기계가 보급되면서 2011년 우기와 2012년 건기에 필리핀 쌀 재배 농민의 87.6%가 토지 고르기 작업을 위해 농기계를 사용하였다.

나) 작물 심기(Crop Establishment)

직파와 이앙 방식 이외에 다포그(Dapog) 방법이 사용된다. 2011년 자료에 의하면, 농민의 69%가 이앙, 28%가 직파 방식을 사용하였다. 드림 파종기는 직파용 기계인데 연료비가 들지 않고 가격이 저렴하며, 고지대, 저지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작물에도 활용 가능하다. 그러나 이앙기 및 드림 파종기는 토지 고르기, 수확기 단계에서의 기계에 비해 도입률이 낮다.

다) 작물 관리 및 유지(Crop Care and Maintenance)

필리핀 대부분의 논(80%)에 관개가 이루어지나, 많은 지역에서 충분하거나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2년 건기에 쌀 재배 농민의 95%가 양분 관리를 위해 비료를 사용하였으나 농약 사용은 저조하여 63%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

국제미작연구소(IRRI)가 작물관리를 위한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는 IT 도구인 미작관리자(Rice Crop Manager: RCM)를 개발하였는데 농업부(DA)에서는 지역 현장 사무소와 PhilRice를 통해 이를 시범 운영하였다. RCM 중간보고에 따르면 권고사항을 따른 농가는 그렇지 않은 농가보다 높은 수확량(0.55 톤/ha)과 높은 순수익(9,307PHP/ha)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수확(Harvesting)

수확은 수동/기계 수확, 수동/기계 탈곡 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2015년 1,400대의 콤팩트 수확기가 전국에 보급되었다. 기계 수확, 탈곡이 소득 제고, 비용 절감 효과가 있지만 기계화율은 0.96%로 매우 낮다.

마) 수확 후 활동(Postharvest Activities)

건조는 매트 또는 포장 도로 위에 벼를 늘어놓아 햇볕에 건조시킨다.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왕겨를 연료로 사용한다. 농민의 88%가 수확 이후 하루 이내에 탈곡하고 65%가 탈곡 후 건조된 상태의 벼를 판매한다.

3) 통합관리기술(Holistic, Integrated Management Technologies)

PhilRice에서 개발한 PalayCheck 시스템은 생산량을 늘리고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권장 사항을 제공하는 Key Check로 구성된 통합 시스템 접근 방식인데 다음과 같이 1~9번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권장 품종의 고품질 종자 사용
2. 평평하게 고른 땅
3. 숙련된 동기식 재배(휴식기 이후)
4. 건강한 묘목의 수
5. 새끼치기(Tillering)부터 EPI(Early Panicle Initiation) 및 개화 시기까지의 충분한 영양소 제공
6. 작물의 성장과 수확량에 영향을 미치는 가뭄 또는 과도한 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 방지
7. 해충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미한 수확량 손실
8. 수확을 위한 적절한 시기
9. 곡물의 적절한 건조, 세척, 보관

3.2.3. 도전과제

첫째, 농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워서 38%만이 농업 기술자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24%는 농업부 지역사무소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78.6%가 PalayCheck와 같은 제도를 계획하였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농민의 59%가 한 번도 교육 및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 기술자의 역량 및 기술 또한 문제이다. PalayCheck에 의하면, 농민의 51.3%는 농업 기술자가 적극적으로 기술 도입을 권장하지는 않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셋째, 기계 구입을 위한 비용 문제는 기술 도입에 악영향을 미친다. 높은 투자 비용으로 농기계를 대여하거나 구매할 능력이 없고 연료비 또한 고려 대상이다. 농기계를 비용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이와 관련하여, 소농의 신용 접근성 제약도 새로운 농기계 도입을 저해한다. 정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농업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은 여전히 미미하여, 농업 분야 대출이 전국 모든 은행 대출의 3~4%에 불과하다고 한다.

3.2.4. 제언

농기계, 비료 및 살충제 진단 도구, 농장 경영 기술 패키지 등 농업기술이 다양하게 개발되었지만 이것들이 최종 수혜자에게 도달되어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농민들을 조직화하면 유통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농업 기술자들이 강의 행사를 조직하는 데 용이하고 더 많은 청중도 올 수 있을 것이다. 농민들끼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조직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한 뒤 농기계 표준임대료를 설정하여 농기계 유지 보수 및 추후 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확 후 중앙 집중식 건조 및 제분 시설을 제공하여 건조 또는 제분 형태로 판매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 연구 개발이 강화되어야 한다. 농기계가 모든 생태계에 적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이며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도록 농기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해야 한다.

제4장

중점 협력 분야

중점 협력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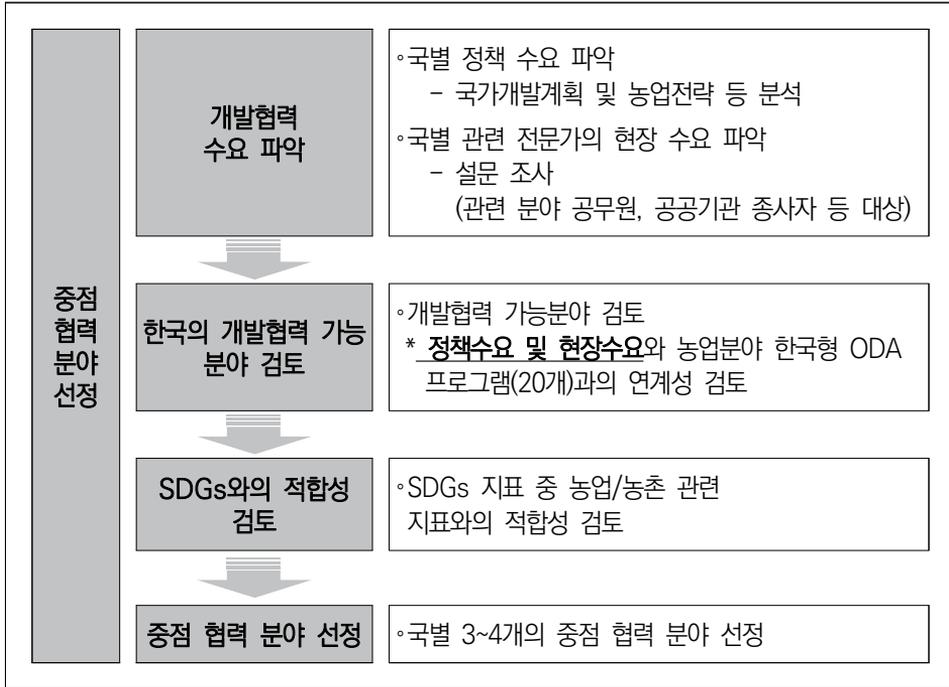
1. 중점 협력 분야 선정 절차

필리핀과의 중점 협력 분야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 그림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국가개발계획과 농업 부문 전략을 분석하여 필리핀의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국내외 전문가,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생각하는 개발협력 필요 분야를 파악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책 경험,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발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검토하였는데, 여기에는 ‘한국형 ODA 모델’의 농림업 분야 협력 프로그램 20개를 참고로 하였다. 즉, 대상국에서의 협력수요와 연계되는 것을 검토하였다.

한편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도 연결될 수 있도록 세부목표(target)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필리핀에 대한 개발협력 가능 분야를 선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세부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그림 4-1〉 중점 협력 분야 선정 절차



자료: 저자 작성.

2. 중점 협력 분야 선정

필리핀의 국가개발전략, 농업 분야 개발전략에서 제시한 중점 추진 분야들을 우리나라의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ODA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개발협력 가능 분야를 도출하였다.

〈표 4-1〉 필리핀 개발협력 수요와 한국형 농림업분야 ODA 프로그램과의 연계성

한국형 농림분야 ODA 프로그램	필리핀 개발계획(PDP)						필리핀 농업개발전략(PA)			현장 수요
	지속 가능한 농림 어업 생산성 향상	농업 관련 기업의 성장	소농의 가치 사슬 참여 확대	소농의 농지 접근성 향상과 보호	소농을 위한 금융 접근성 향상	소농의 기술 접근성 향상	투자	기술 개발	거버넌스 개선	
식량작물생산성										37
영농기계화	○									44
경제작목/시설원예		○								12
친환경농업										17
관개/배수	○						◎			33
농업생산기반	○									7
농지제도				◎						7
농산물유통							◎			27
농식품안전										28
농업기술개발	○					◎		◎		42
농업인력육성							○			13
농업협동조합			◎		△					14
가축질병관리										5
농산물가공										34
농촌종합개발										19
농촌특화사업										14
가축사육관리			△							3
농산물검역			○							15
산림녹화										4
임산자원개발										4
종합 점수	8	2	6	3	1	3	8	3	-	

주: 종합점수 산정 기준: ◎는 '연관성 매우 높음 (3점)', ○는 '연관성 높음 (2점)', △는 '연관성 보통(1점)'; 현장 수요는 필리핀의 농업 관련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 2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별 협력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의 종합 집계 점수임.

자료: 허장 외(2017b: 36)의 내용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위 표에서 6점 이상을 차지한 3개 분야를 개발협력 가능 분야로 선정한다. 즉, PDP에서 제시한 ‘지속가능한 농림어업 생산성 향상’, ‘소농의 가치사슬 참여 확대’, 그리고 필리핀 농업개발전략 2020에서는 ‘투자’를 선정한다. 그리고 이 세 가

지 분야가 포괄하는 세부 내용 가운데 우리나라의 ODA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수요가 높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중점 협력 분야를 확정한다.

〈표 4-2〉 SDG와의 적합성 검토 결과

필리핀의 개발협력 수요		한국의 협력가능 분야	관련 SDGs 목표
필리핀 개발계획(PDP)	지속가능한 농림어업 생산성 향상	- 영농기계화 -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 - 농업생산기반 구축 - 농업기술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 시스템	2.1, 2.4
	소농의 가치사슬 참여 확대	- 농업협동조합 - 농촌특화사업	2.3, 2.a,
필리핀 농업 개발전략 2020	투자 확대	-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 - 농산물 유통 - 농업인력 육성	2.3, 2.4, 2.a, 2c

자료: 저자 작성.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의 필리핀과의 농림업 중점 협력 분야는 ① 농업기술 보급과 인력 양성 ② 농업 생산기반 구축과 영농기계화 ③ 소농의 가치사슬 참여와 농외소득원 제공 등으로 설정한다.

〈표 4-3〉 중점 협력 분야 선정

목표	중점 협력 분야	관련 한국형 ODA 프로그램
농업기술 보급, 인프라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생산 확대	농업기술 보급과 인력 양성	- 농업기술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 시스템 - 농업인력 육성
	농업 생산기반 구축과 영농기계화	- 영농기계화 - 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 - 농업생산기반 구축
소농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증대	소농의 가치사슬 참여와 농외소득원 제공	- 농업협동조합 - 농촌특화사업 - 농산물 유통

자료: 저자 작성.

3. 중점 협력 분야 가치사슬

필리핀의 농업 가치사슬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에 관하여 국내 전문가, 국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AHP 분석방법론에 따라 분석하였다.⁴⁷⁾ 아래는 그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우선, 국내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농민역량, 농식품 비즈니스, 유통, 저장 및 가공, 금융 등이 이 순서대로 중요도 0.1을 넘기면서 중요한 가치사슬 단계로 지적되었다.

〈표 4-5〉 필리핀 농업가치사슬 중요도(1단계) 분석 결과 - 국내

평가 항목	투입재	생산 인프라	생산 기술 지도	저장 및 가공	유통	수출입	금융	농민 역량	농식품 비즈니스
중요도	0.047	0.088	0.066	0.109	0.165	0.046	0.109	0.192	0.177
우선 순위	8	6	7	4	3	9	4	1	2
일관성 비율	0.0281(8)								

주: ()는 표본 수.
자료: 저자 작성.

필리핀 전문가 조사에는 20명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는 국내 전문가 조사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금융, 농민역량, 저장 및 가공, 투입재, 농식품 비즈니스와 유통 등이다. 투입재 항목이 추가된 것, 우선순위가 달라진 것을 제외하고는 중요하다고 판단한 지점이 비슷한 것이다.

47) AHP 조사 개요는 종합보고서를 참조할 것.

〈표 4-6〉 필리핀 농업가치사슬 중요도(1단계) 분석 결과 - 국외

평가 항목	투입재	생산 인프라	생산 기술 지도	저장 및 가공	유통	수출입	금융	농민 역량	농식품 비즈니스
중요도	0.115	0.097	0.093	0.123	0.105	0.055	0.167	0.141	0.105
우선 순위	4	7	8	3	5	9	1	2	5
일관성 비율	0.0059(20)								

주: ()는 표본 수

자료: 저자 작성.

이에 따라 국내, 국외 조사 결과를 통합한 결과는 농민역량, 금융, 농식품비즈니스, 저장 및 가공, 유통 등 다섯 가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필리핀 농업가치사슬 중요도(1단계) 분석 결과 - 종합

평가 항목	투입재	생산 인프라	생산 기술 지도	저장 및 가공	유통	수출입	금융	농민 역량	농식품 비즈니스
중요도	0.091	0.096	0.087	0.121	0.121	0.053	0.151	0.157	0.13
우선 순위	7	6	8	4	4	9	2	1	3
일관성 비율	0.0065(28)								

주: ()는 표본 수

자료: 저자 작성.

이렇게 파악된 다섯 가지 중요한 항목에 대하여 2단계로 분석한 결과, 필리핀의 농업 가치사슬 중에서 ‘농민역량’ 지표에서는 농민 수용 태세(새로운 작물을 도입하거나 기술을 배우려는 의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며, ‘금융’ 지표에서는 금융 접근성(생산 및 판매 활동에 필요한 자금 이용)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농식품 비즈니스’ 지표에서는 마케팅 역량, ‘저장 및 가공’ 지표에서는 수확 후 관리기술, ‘유통’ 지표에서는 시장 접근성(도로 접근성 및 물류 여건)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필리핀 농업가치사슬 하위지표 분석(2단계) - 결과

평가 항목	농민역량		금융지표		농식품 비즈니스			저장 및 가공			유통	
	농민 수용 태세	협동 조합 참여 의지	금융 접근성	이자율	취업 및 일자리	창업 여건	마케팅 역량	시설 이용 접근성	수확후 관리 기술	가공 및 포장 기술	농식품 비즈니스	시장 가격 정보
중요도	0.613	0.387	0.579	0.421	0.335	0.236	0.428	0.274	0.398	0.328	0.651	0.349
우선 순위	1	2	1	2	2	3	1	2	1	3	1	2
일관성 비율	(28)		(28)		0.0124(28)			0.0071(28)			-	

주: ()는 표본 수
자료: 저자 작성.

제5장

개발협력 추진 전략

개발협력 추진 전략

1. 추진 방향

필리핀의 국가 및 농업 관련 전략을 분석한 뒤 중점추진 분야로 세 개의 분야를 선정하였다. 첫째, 농업기술 보급과 인프라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생산의 확대이다. 이는 국내외 전문가 조사에서는 중요도가 높지 않은 항목이긴 하나, ‘PDP 2017-2022’, ‘PA 2020’ 등 국가정책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분야이므로 중점분야로 선정하였다. 둘째, 소농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증대이다.

이와 같은 중점분야를 위주로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산성 제고와 소득 증대라고 하는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 세부추진 과제

2.1. 농업기술 보급, 인프라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생산 확대

2.1.1. 농업기술 보급과 인력 양성

이 과제는 우리나라 ‘한국형 ODA 모델’의 농림업 협력 프로그램 가운데 ‘농업 기술개발 및 현장지도 지원 시스템’,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된다. 농업기술 보급은 필리핀 개발계획(농촌지도 시스템 강화), 인력 양성은 농업개발전략(인적 역량 개발)에서 추진하는 과제이다. 농업기술 보급을 통해 우수한 영농인력을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이 두 과제는 하나로 묶어서 세부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농업기술 보급은 농업정책의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과제이다. 가령, 필리핀 정부는 식량안보를 위한 주식, 즉 쌀의 생산증대 정책으로 쌀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Rice Productivity Enhancement: RIPE)을 시행 중인데 특히 종자 산업의 발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양질의 종자 대량 생산 및 유통을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 종자 보급은 필수적으로 재배기술의 보급을 수반하므로, 주곡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보급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PDP 2017-2022’에서는 기술 및 비즈니스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적 보급요원의 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NEDA 2017: 117). 여기에는 다수확의, 가뭄과 홍수와 같은 스트레스에 강한 품종 등 보증 종자(certified seeds)의 보급과 축산, 가금류의 우량 번식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해충종합관리, 양분종합관리 등과 같은 우수한 재배기술, 그리고 GAP와 같은 다양한 식품안전 기준들에 대한 교육도 포함한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하여 유기농업, 도시농업, 할랄 식품 생산과 같은 조치들을 계속 장려하고 적기의 기상, 기후 예보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한다.

이와 같은 것들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필리핀 농업부는 기술보급 조직(units)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연구개발 기관과 잘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조정, 기술을 교육받은 농가로부터의 피드백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는 국공립 대학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다자 간 파트너십 등 시장중심적 보급 모델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PDP에서 지향하는 이와 같은 과제들은 우리나라와 농림업 개발 협력의 세부 분야를 모색하는 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준다(NEDA 2017: 117).

아울러 ‘PA 2020’에서는 투자전략의 하나로 물적 인프라, 농촌 신용과 금융, 제도와 더불어 인적 자원への 투자를 중요한 전략적 필수 요소의 하나로 언급하였다. 공공 부문이 인적 자원에 투자함으로써 농업이 더욱 생산적이고 덜 위험하며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이로써 민간의 투자를 더 많이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NAST PHL 2020).

농업기술 보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근대화 이후 농촌진흥청 조직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농업 생산성 제고와 농가 소득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 1960년대 초 설립된 농촌진흥청은 농림부로부터 독립된 중앙부처로서 식량작물과 원예, 축산 등 분야별로 별도의 국립연구기관을 산하에 보유하였다. 아울러 1990년대 중반까지는 지방조직으로 시·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촌지도소, 읍·면 농촌지도소 지소 등의 일관된 계통의 보급 조직을 갖추었다. 특히 연구개발(R&D)과 지도보급(extension) 기능이 하나의 우산 아래 통합, 조정되면서 새로운 쌀, 원예 등 종자를 개발하고 가축 품종을 개량하면서 보급종으로 개발한 뒤 이와 관련된 재배 및 사육 기술과 함께 신속하게 보급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농기계, 비료, 농약 등의 농자재, 농산물 저장과 가공, 운송, 유통 등 농축산물 가치사슬의 모든 부분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다.

필리핀은 총 7,107개의 섬으로 이루어지고 강우량의 분포에 따라 4가지 유형의 기후대를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12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면서 18개의 행정 구역, 81개 주, 145개 시, 1,489개 자치단체, 42,045개 동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다양한 기후대에 따른 자연 및 영농 여건, 그리고 사회, 정치적 구성에 따라 이를 고려한 기술보급 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현재 필리핀에서는 국가기관인 농업부

(DA), PhilRice와 PhilMech 등이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 단위에서 기술개발과 보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령, 쌀농사와 관련하여 토지 고르기를 위한 사륜 트랙터, 핸드 트랙터, 소형 경운기, 라보이(Laboy) 경운기 등을 PhilRice가 개발, 보급하였다. DA는 PhilRice와 함께 국제미작연구소(IRRI)가 개발한 미작관리 의사결정도구인 RCM(Rice Crop Manager)을 보급하였다. PhilRice는 이 밖에도 전체적 통합관리기술(Holistic Integrated Management Technologies)의 하나로 이른바 팔라이체크(PalayCheck)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가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위탁원고 결과).

이와 같은 필리핀 정부의 기술보급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효과적으로 전달, 활용될 수 있는 체계의 정비, 구축, 그리고 관련 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 필리핀은 특히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Unit: LGU)의 권한이 강하므로 주 정부의 농업 정책도 기술보급과 관련 인력 양성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농업기술 보급체계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의 지역별 농업기술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부응하는 보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컨설팅을 양국 간 개발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2.1.2. 농업 생산기반 구축과 영농기계화

필리핀 농업개발을 위한 중점 추진분야로서의 생산기반 구축은 수자원 관리 증관개·배수 시스템 개발 및 관리와 같은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영농 기계화를 통한 생산 확대도 포함한다.

PDP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림어업 생산성 향상’이라고 하는 성과목표를 위해 재난과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소규모, 지역 차원의 물 절약형 관개 시스템을 확장, 정비할 것을 추진한다고 하였다(NEDA 2017: 116). 지역적으로는 Region 2의 중부 루손, 카가얀 계곡, SOCCSKSARGEN, ARMM(민다나오 무슬림자치 지역), 그리고 비콜 지역 등을 대상 지역으로 지적하였다.

특히 엘니뇨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물 절약, 관리 기

술이 사용되도록 하고, 143개 주요 유역에 대해서는 유역종합관리(integrated watershed management) 방식을 활용하여 토양의 생산성과 용수의 효율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NEDA 2017: 116).

이와 더불어 PDP에는 농기계와 장비의 사용을 촉진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는 「농어업 기계화촉진법(Agricultural and Fisheries Mechanization Law)」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 수확 후 관리, 가공 등을 위한 농기계와 장비의 생산, 조립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기계(가령 트랙터, 경운기, 수확기)와 장비(가령 기계식 건조기, 예취기, 도정 장비)에 관한 정보, 교육, 소통 등의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쌀 수입 개방 이후 생산비 절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농기계와 장비의 사용을 장려하는데, 대상 지역은 전국 평균(ha당 4톤)보다 생산성이 높은 반면 생산비는 비교적 높은 곳을 대상 지역으로 한다. 기계화로 생긴 유희 노동력은 품목 다변화, 부가가치 제고, 농기업체 공급 등에 활용한다(NEDA 2017: 116-117).

필리핀은 정부의 노력으로 재배면적 대비 관개시설은 많이 확보되어, 쌀 재배면적의 75%(320만 ha)에 관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관개가 이루어지는 쌀 경작농지의 경우에도 연간 생산성이 ha당 9.52톤으로, 이웃한 베트남의 10.47톤, 태국의 20.59톤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진단이다(Department of Agriculture 2018). 이는 관개의 효율성, 효과성이 떨어지고 개보수가 필요한 관개시설이 많다는 것을 방증한다.

우리나라는 1970년 농업진흥공사가 설립되면서 수자원 관리를 위한 공적 조직 체계가 만들어졌다. 이후 대규모 농업기반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보조율을 인상하며 관련 법령을 제정, 개정하는 등 사업추진 관련 정책을 실시해 왔다. 대규모 종합개발사업이 마무리되고 경지 정리사업이 확대되면서 우량농지에 대한 기반 정비, 수리 시설의 개보수 등이 이어졌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경지정리사업은 종결되었고 방재 차원에서 수리 시설의 개보수, 관리의 효율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이남호 2014).

관개를 통한 수자원의 공급은 필연적으로 경지의 구획화 등 정리가 이루어져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생산기반이 정비된 농경지는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로써 농업의 효율화, 생산성의 제고를 통한 농업의 구조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인프라 구축에 따르는 대규모 투자와 장기적 계획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농업기계화 5개년계획 등이 수립되면서 영농기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벼 농업 위주의 소형, 중대형 경운기가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이앙기, 수확기 등 벼농사의 일관기계화 체계가 구축되었다(이윤정·허장 2015). 이와 더불어 농가의 부담과 영농비용을 줄이며,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여러 형태의 농기계 공동이용조직(가령 영농기계은행, 기계화영농단 등)과 기업형 농기계 이용방식(가령 위탁영농회사,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농기계 공동이용) 등이 활용되었다. 아울러 농기계 훈련을 제공하고 농기계 연구 및 개발 분야를 지원하였다. 농기계 이용은 농업생산량과 식량 증산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영농기계화는 기계의 보급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교육, 지역 여건과 영농에 적합한 기계의 연구 개발, 농기계의 검사와 판매 등 보급, 사후관리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하여야 한다. 각각에 대한 공적인 지원과 관련 정책은 농기계 산업의 발전 단계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이윤정·허장 2015).

2.2. 소농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증대

2.2.1. 소농의 가치사슬 참여와 농외소득원 제공

PDP는 소농의 ‘가치사슬 참여의 확대’를 성과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생산지

와 시장의 물리적 연결, 영세 농어민의 조직화, 영세 농어민 대상 부가가치 증대 관련 역량 강화 교육, 계절노동 농어민을 위한 농외소득 기회 제공 등을 세부 목표로 제시하였다(NEDA 2017: 115). 이것들은 생산 이후 가치사슬 단계에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농민을 조직, 교육하는 것, 그리고 농촌에서의 새로운 농외소득원 개발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농민의 조직화를 통한 가치사슬 참여, 그리고 소농을 위한 농외소득원 제공으로 설정하도록 한다. 대체로 소농의 소득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부가가치 증대 활동들을 포함한다.

이 협력 분야와 관련하여 PDP가 언급하는 내용을 보다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농들이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집합(cluster)으로 조직화한다. 협동조합이나 연합체에 소속되지 않은 소농들을 대상으로 하며, 향후 보다 큰 규모의 농기업과 구매자들과 연계하도록 한다.

둘째,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역량개발의 일환으로 전문적인 농업 보급요원들이 농민현장학교(Farmer Field School: FFS)나 시범농장에서 소농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가공, 포장, 마케팅, 그리고 상품 기준과 인증의 준수 방법 등을 교육한다.

셋째, 수입이 불안정하고 충격에 취약한 계절 농업노동자(seasonal farm workers)를 위한 농외소득원을 제공하는 것인데, 농한기에 지역사회 내에서 고용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한다. 특히 농촌 관광업에의 참여와 같은 방식으로 대안적 고용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외 전문가 대상 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수확 후 관리기술, 마케팅 역량, 시장 접근성 등과 더불어 농민의 기술 도입 수용성 제고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소농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가치사슬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농업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조직되면서 다양한 경제 및 신용(금융)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형식은 농민회원의 자율적 조직이긴 하나, 정부의 각종 농업정책과 프로그램의 집행을 대행하면서 농정의 중요한 파트너로 역할을 해왔다. 특히 군 이하 지역 단위에서 농가들의 농자재 구입, 생산, 출하, 수송, 판매 등 전체 가치사슬 과정에 농민들이 조직화하여 참여함으로써 부가가치 제고에 큰 역

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우리나라가 추진해 온 농외소득 제고 정책은 1960년대부터 부업장려정책, 새마을 공장 육성정책, 농외소득개발정책, 농촌특산단지정책 및 농촌관광사업 등이 있다. 이것들은 농촌의 유희 노동력을 사용하여 겸업과 부업소득을 창출함으로써 농가의 전체적인 소득을 증대하고자 시행되었다. 1990년대 이후의 농촌 특산단지 정책 및 농촌관광사업은 최근의 이른바 ‘6차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의 관광지나 음식과 연계하여 지역 발전의 결과도 가져왔다는 평가이다(김윤정·이대섭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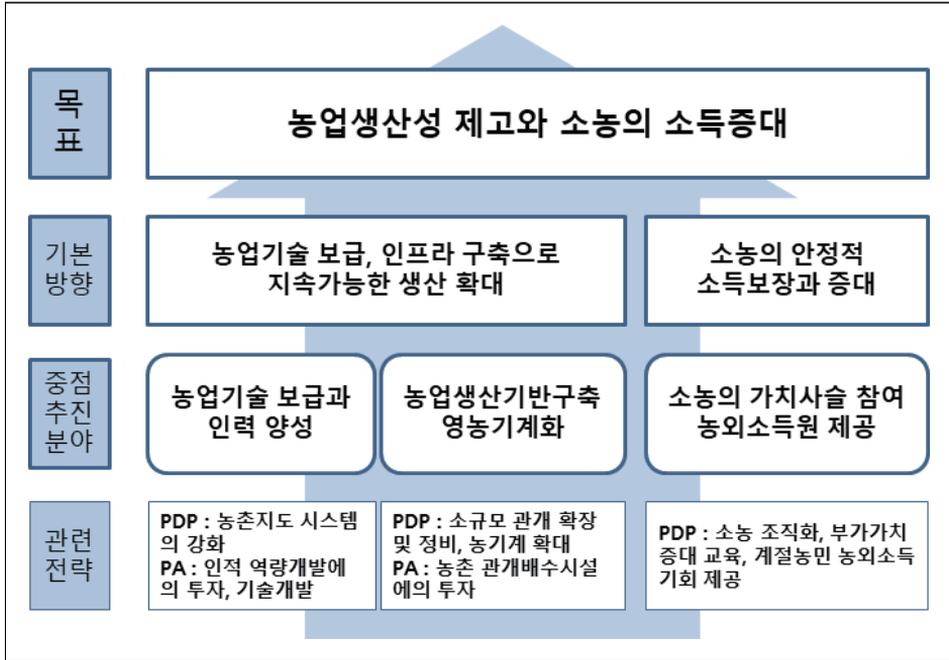
농외 소득원은 영농과 관련한 자원(농지, 자재, 금융, 서비스 등)의 부족으로 높은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개도국 소농에게 소득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상품 개발을 통해 2, 3차 산업으로 확산, 연계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필리핀을 포함하여 많은 개도국에서 겪는 농촌 인구의 도시 유출 문제 등의 부가적인 문제에 대한 잠재적 해결 방안이 된다.

필리핀은 농가(어가 포함)를 집단화 및 조직화하여 커뮤니티를 형성, 규모의 경제를 창출하고자 최근 이른바 F2C2(Farm and Fisheries Clustering and Consolidation) 정책을 구상하였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잠시 미루었다가 최근 시행하기 시작했다. F2C2 정책을 통해 농촌 커뮤니티가 규모화되면 정부 지원의 신속,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할 것이며, 금융 서비스에 대한 집합적 접근성 제고로 영농을 위한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⁴⁸⁾

이상 우리나라와 필리핀과의 농림업 개발협력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분야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4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https://www.emerics.org:446/businessDetail.es?brdctNo=306975&mid=a104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검색일: 2020. 9. 1.).

〈그림 5-1〉 우리나라의 필리핀 농림업 개발협력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분야



자료: 저자 작성.

3. 우리나라 해외진출 민간기업과의 연계 방안

필리핀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지만, 농업 분야 진출기업들이 사업계획을 신고하게 되면 각종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라 신고한 기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⁴⁹⁾ 향후 중점 협력 분야에서 ODA 사업을 기획할 때 관련 분야의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필리핀과 우리나라가 농업 부문에서 중점 협력 분야 관련 ODA 사업을 추진할

49)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웹사이트(<http://www.oads.or.kr/global/global03.asp>, 검색일: 2020. 11. 20.).

때 우리나라 민간기업이 이에 연계 혹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농업생산기반 구축과 영농기계화와 관련된 분야 가운데 우선 생산기반 구축에서는 경지정리, 수자원 개발 등 다양한 인프라 관련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업체가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 시설과 장비 등을 유지하는 분야에도 관련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영농기계화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국내 농기계 회사들이 이미 동남아 지역에 진출하고 있어서 필리핀으로의 진출 확대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농기계 분야는 농기계 공급뿐만 아니라 수리, 부품 공급, 관련 기술 전수 등 부수되는 분야도 다양하므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둘째, 소농의 가치사슬 참여와 농외소득원 제공 분야는 세부적으로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어서 이에 적합한 비즈니스를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소농이 유통, 판매 등 확대된 가치사슬에 참여하려면 조직화가 필요하다. 여기서 민간업체는 이들 소농 연합체와의 계약재배로 원료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ODA 사업을 통해 대상지역의 여건에 부합하는 농외소득원을 찾아내어 이에 대한 개발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관련 기술제공과 수요처로서의 역할을 민간기업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1〉 필리핀 중점 협력 분야와 우리나라 민간기업 연계 방안

필리핀 중점 협력 분야	연계 분야	민간기업 참여 방식
농업기술 보급과 인력양성	- 농촌지도 시스템 강화 - 인적 역량개발	
농업생산기반 구축과 영농기계화	- 경지정리, 수자원 개발 - 농기계의 공급, 수리, 부품 공급, 관련 기술 전수	- 인프라 건설 컨설팅 및 엔지니어링, 시설과 장비의 유지, 관리 - 농기계 공급, A/S 제공, 기술 교육
소농의 가치사슬 참여와 농외 소득원 제공	- 소농의 조직화와 이를 통한 계약재배 - 지역 여건 고려한 농외소득원 관련 기술 및 판매처	- 계약재배 - 농외소득 활동에 대한 기술 제공 + 판매처 역할

자료: 저자 작성.

제6장

요약 및 결론

요약 및 결론

필리핀 농업 부문은 2018년 기준 총 GDP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재배작물로는 사탕수수, 쌀, 코코넛, 바나나, 옥수수, 파인애플 등이 있으며, 최근 사탕수수 재배가 급증하며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필리핀의 쌀 생산은 2018년 1,906만 6,000톤으로 전년 대비 1.08% 감소하였으며, 생산 면적은 480만 ha, 생산액은 73억 1,1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쌀은 필리핀 주요 식량작물로 국가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필리핀은 세계 8위 규모의 쌀 생산국(세계 총 쌀 생산의 약 2.8%)인 동시에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이다. 필리핀은 연중 벼 재배가 가능한 지역임에도 쌀 자급을 실현하지 못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농경지 면적은 2016년 기준 559만 ha로 농경지 면적 비중은 국토 면적 대비 18.7%, 농지면적 대비 44.9%이며 1인당 농경지 면적은 0.053ha에 불과하다.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는 5,66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3%에 해당한다. 농업 부문의 취업 인구는 2018년 기준 1,000만 명이며, 총 고용의 25.1%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필리핀의 국가전략은 2016년 10월 두테르테 대통령이 서명, 발표한 『우리의 포부 2040』에 기초하여 수립되어 있다. 이 문서는 계획서(plan)라기보다는 2040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장기적 비전(vision)이다. 필리핀개발계획(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7~2022)은 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전략이다. 첫째 과

제는 공공제도 등에 대한 신뢰 회복, 둘째 과제는 분야별 경제발전, 셋째 과제는 과학기술 개발 등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과제 해결을 위해 다섯 가지 세부 전략이 제시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농림어업 분야에서의 경제적 기회의 확대”이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는 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경제적 기회의 확대, 소농, 생계농 등 영세농어민에 대한 경제적 기회에의 접근성 향상이다. 그 밖에 관련 정책, 전략으로는 ‘필리핀 농업 2020’, ‘필리핀 쌀산업 로드맵 2030’ 등이 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ODA 중점 협력 국가로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5년간 총 5억 33백만 달러(약정액 기준)의 ODA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는 30.9백만 달러로 ODA 총액의 5.8%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2014년부터 2018년) 농업 및 농촌개발 분야에 총 66개 ODA 사업에 지원하였다. 시행기관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총 5개 기관이다.

필리핀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2차 국가협력전략은 지역개발을 중점 협력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였는데 그 기본방향은 (i)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ii) 농업 가치사슬 강화 및 농업유통체계 역량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가 (iii) 농업생산 증대 및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등 세 가지이다.

필리핀의 ODA 총액은 2018년 기준 10억 2,600만 달러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1억 10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농림수산 및 농촌개발 분야가 전체 ODA 지원 금액의 6% 비중을 나타냈다.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전략으로는 USAID, ADB, IFAD, OECD 등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전략, 정책적 제언 등을 살펴보았다.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농업가치사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질문한 설문조사 결과를 AHP 분석기법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농민역량, 금융 접근성, 농식품 비즈니스, 저장 및 가공, 유통 분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필리핀의 국가개발전략, 농업 분야 개발전략에서 제시한 중점 추진 분야들을 우리나라의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ODA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개발협력 가능 분야를 도출하였는데, 최종적으로 중점 협력 분야를 ① 농업기술 보급과 인력

양성 ② 농업 생산기반 구축과 영농기계화 ③ 소농의 가치사슬 참여와 농외소득원 제공 등으로 설정하였다. ①과 ② 분야는 ‘농업기술 보급, 인프라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생산 확대’, ③ 분야는 ‘소농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증대’라고 하는 기본방향 아래 속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깊은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그 관계는 지속될 것이다. 원조 및 개발효과성이 향상된 개발협력 사업이 발굴, 기획, 추진되려면 부문별로 집중화된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문헌과 정책 보고서,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하여 중점 협력 추진분야를 제시하였다.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사업을 위하여 중점분야에 집중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나,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양국 간의 관계, ODA의 역할 등에 비추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새로운 연구, 조사를 통해 변화를 반영한 중점 협력 추진분야와 과제를 새롭게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 관계부처 합동. 2016. 『필리핀 국가협력전략』.
- 관계부처 합동. 2020. 『5개 중점 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수정안-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관계부처합동.
- 권오신. 2018. “미국 지배 하에서 필리핀 입법부(의회)의 성립, 변화, 그리고 그 역할.” 『동국사학』, 64.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김동엽. 2019. “필리핀 2018: 권력 집중, 경기 위축, 자주 외교.” 『동남아시아연구』 29권 1호.
- 김승준. 2017. “필리핀의 농업현황과 정책.” 『세계농업』 제198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윤정·이대섭. 2015.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심화 연구(2차년도) - 농촌특화사업개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종선·이윤정·조선미. 2019. “동남아 6개국(CLMVIP)의 쌀 산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방향.” 『KREI 농정포커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8. 『2018 국별 진출전략 필리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재인용). 2019. 『19 필리핀 마닐라 출장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0. 『2020 국별 진출전략 필리핀』.
- 박병식. 2017. “한국과 필리핀 정부의 경제 공동 발전방안.”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4253-4271(2017. 6.). 한국행정학회.
- 박준근·Jamalludin Sulaiman·송경환·박평식. 2012. “필리핀 쌀 산업 현황과 발전전략.”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95-105(2012.6.).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 송주호. 2014. “식량안보와 필리핀 쌀 사례.” 『세계농업』 제16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외교부. 2018. 『필리핀 개황』.
- 이남호. 2014.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심화연구 - 농업생산기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윤정·허장. 2015. 『「한국형 ODA 모델」 중 농림업 분야 국제협력 프로그램 심화 연구(2차년도) - 영농기제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정빈. 2003. 『필리핀, 농업생산과 농업구조 개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흥국·윤진표·이한우·최경희·김동엽. 2011. 『동남아시아의 최근 정치·외교에 대한 전략적 평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2018. “2018년 ASEAN 국가별 경제동향 및 2019년 전망(상).” 『KITA Market Report』.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6. 『FTA로 다시 보는 필리핀』.
- _____. 2019. 『농기계 수출연구사업단 필리핀 농기계 동향보고서』.
- 한국수출입은행. 2017. 『세계국가편람』.
- 한국수출입은행. 2020. 『세계국가편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19.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필리핀』.
- 해외농업개발협회. 2014. 『해외농업개발 투자 매뉴얼(필리핀)』.
- 허장·이대섭·김종선·김윤정·최민정·조선미·안규미. 2017a. 『국제농업개발협력 주요국 별 중점추진 분야 선정 연구-아시아권 7개국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장·이대섭·김종선·최민정·최은지·안규미·하경진. 2017b. 『중남미 농촌개발사업 성과 중심 통합관리 결과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DB(Asian Development Bank). 2018.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Philippines, 2018-2023 – High and Inclusive Growth』.
- Department of Agriculture. 2018. The Philippine Rice Industry Roadmap 2030.
- Elmer G. Bautista, Ronell B. Malasa, Karen A. Cortado, Briones Teodora, Eduardo V. Alberto, Michael A. Gragasin, Rossana C. Amongo, Cristy Cecilia Polido, 김홍상·김관수. 2015. “2015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농정성과 확산(KAPEX) 사업 필리핀 공동조사 결과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Ernesto O. Brown, Reynaldo V. Eborra and Fezoil Luz C. Decena. 2018. “The Current State, Challenges and Plans for Philippine Agriculture.” Food and Fertilizer Technology for the Asian and Pacific Region.
- IFAD(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2017. *Republic of the Philippines Country Strategic Opportunities Programme 2017-2022*.
- NAST PHL(National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Philippines). 2020. Philippine Agriculture 2020: A Strategy for Poverty Reduction, Food Security, Competitiveness, Sustainability, and Justice and Peace.

- NEDA(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2016. *AmBisyon Natin 2040: A Long-term Vision for the Philippines*.
- _____. 2017. *Philippine Development Plan 2017-2022*.
- OECD. 2017. *Agricultural Policies in the Philippines*. OECD Publishing, Paris.
- PSA(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2015. *Selected Statistics on Agriculture 2015*.
- _____. 2019a. *2019 Philippine Statistical Yearbook*.
- _____. 2019b. *Selected Statistics on Agriculture 2019*.
- Roxanne T. Aguinaldo, Vlademir A. Shuck, Sylvia B. Concepcion. 2017. “Impediments and development of organic agriculture: the case of vegetable value chain in Davao city, Philippines.” *Orgatrop 2017: International Conference on Organic Agriculture in the Tropics*.
-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2020. *Briefing Note for Countries on the 2020 human Development Report: Philippines*.
- USAID(United States Agenc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2019. *Philippines Country Development Cooperation Strategy(CDCS)*.

[웹사이트]

- 공적개발원조(ODA) 통합보고 시스템. <<https://stats.koreaexim.go.kr/odastats.html>>. 검색일: 2020. 4. 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홍지역정보 종합지식포털. <https://www.emerics.org:446/businessDetails?brdctNo=306975&mid=a104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3&search_region=&search_area=¤tPage=1&pageCnt=10>. 검색일: 2020. 9. 1.
- 외교부 웹사이트. <[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40&titleNm=국가정보\(필리핀공화국\)](http://www.mofa.go.kr/www/nation/m_3458/view.do?seq=40&titleNm=국가정보(필리핀공화국))>. 검색일: 2020. 3. 25.
- 제약산업정보포털 웹사이트. <<https://www.khidi.or.kr/board/view?pageNum=8&rowCount=10&menuId=MENU01835&maxIndex=00487616809998&minIndex=00138386709998&schType=0&schText=&categoryId=&continent=&country=&upDown=0&boardStyle=&no1=&linkId=48760466>>. 검색일: 2020. 5. 14.
- 필리핀 관광부 한국사무소 웹사이트. <[참고문헌 | 103](https://www.itsmorefuninthephilippines.co.kr/more-</p>
</div>
<div data-bbox=)

info.aspx>. 검색일: 2020. 3. 27.

한국수출입은행 웹사이트. <http://211.171.208.44:8010/worldbook/countryInfo?area_cd=100&ctcd=PH>. 검색일: 2020. 3. 25.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웹사이트. <<http://www.oads.or.kr/global/global03.asp>>. 검색일: 2020. 11. 20.

AFACI 웹사이트. <<http://afaci.org/>>. 검색일: 2020. 5. 20.

BSP(Central Bank of Philippines) 웹사이트. <<http://www.bsp.gov.ph/PXWeb2007/dialog/statfile1.asp>>. 검색일: 2020. 4. 14.

CIA 웹사이트.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rp.html>>. 검색일: 2020. 3. 26.~5. 12.

FAO STAT 웹사이트. <<http://www.fao.org/faostat/en/#data/QI>>. 검색일: 2020. 6. 25.

FAO STAT 웹사이트. <<http://www.fao.org/faostat/en/#data>>. 검색일: 2020. 3. 31.~4. 9.

ILO STAT 웹사이트. <https://www.ilo.org/shinyapps/bulkexplorer41/?lang=en&segment=indicator&id=EAP_2EAP_SEX_AGE_GEO_NB_A>. 검색일: 2020. 5. 13.

IMF 웹사이트. <<https://www.imf.org/external/pubs/ft/weo/2018/02/weodata/weoselser.aspx?a=&c=566&t=1>>. 검색일: 2020. 3. 27.

KOICA 필리핀사무소 웹사이트. <http://koica.go.kr/phl_kr/7421/subview.do>. 검색일: 2020. 5. 20.

KOPIA 필리핀센터 웹사이트. <<http://itcc.rda.go.kr/kopia/portal/kopiaBiz/kopiaBizPresent.do?menuNo=1&languageGb=01>>. 검색일: 2020. 5. 20.

KOTRA 웹사이트.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75035&searchNationCd=101080>>. 검색일: 2020. 4. 27.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2/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08764>>. 검색일: 2020. 5. 15.

OECD STAT 웹사이트. <<https://stats.oecd.org/>>. 검색일: 2020. 4. 3.~2020. 5. 18.

NEDA(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웹사이트. <<https://www.neda.gov.ph/poverty-in-ph-expected-to-be-halved-by-2022-neda/>>. 검색일: 2020. 9. 4.

PSA(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웹사이트. <<http://openstat.psa.gov.ph>>. 검색일: 2020. 3. 27.~5. 13.

PSA 웹사이트. <<https://psa.gov.ph/content/proportion-poor-filipinos-was-estimated-166->

percent-2018>. 검색일: 2020. 9. 4.

UNDP 웹사이트. <<http://hdr.undp.org/en/countries/profiles/PHL>>. 검색일: 2020. 3. 31.

World Bank 웹사이트. <<https://data.worldbank.org/country/philippines>>. 검색일: 2020. 3. 27.~5. 21.

World Integrated Trade Solution 웹사이트. <<https://wits.worldbank.org/CountryProfile/en/Country/PHL/Year/2018/TradeFlow/Import/Partner/by-country#>>. 검색일: 2020. 3. 20.

KREI

www.krei.re.kr

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3차년도): 필리핀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in Agriculture and Forestry
Sector with the Philippines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 1833-5500 F. 061) 820-2211

